

4주차

강원의 누정3 - 요산요수의 정자, 소양정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소양정의 어제와 오늘
2차시	조선시대 소양정의 명승 가치
3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매월당 김시습
4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김상헌 가문
5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다산 정약용

1차시 소양정의 어제와 오늘

학습 목표

- 소양정의 이름에 담긴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소양정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누각은 2층 이상의 중층 구조로 기와지붕을 얹으며 정자에 비해 규모가 큼니다. 정자는 팔작지붕에 기둥이 많지 않으며 지붕은 초가 형태도 많습니다. 현재의 소양정은 전형적인 누각 건축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럼 소양정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양정은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춘천시는 강원도 도청 소재지로서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소양정에서 바라본 소양강 풍경입니다. 정자 이름인 ‘소양정’은 정자 앞을 가로질러 흐르는 ‘소양강’이라는 강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곧 ‘소양정’은 ‘소양강 가에 있는 정자’라는 뜻입니다.

소양정의 창건과 중건의 역사는 조선후기의 학자 이유원이 지은 <<임하필기>>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원은 소양정이 소양강 가의 언덕에 위치해 있으며, 민간에서 전하는 말을 근거로 삼국시대에 창건된 것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원천석은 <춘주>라는 시에서 “다시 소양강에 와서 강가 누대에 오르니, 누대 가득 봄빛이라 더욱 풍류가 있네.”라고 하였습니다. 원천석이 말한 ‘소양강 가의 누대’는 소양정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소양정은 적어도 고려후기에 명소로 이름을 날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양정’이란 정자의 명칭은 고려 말기에서 조선 초기를 살았던 조준이란 문인의 시구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조준은 <봄날 소양강 노래>라는 시에서 “마음 상해 말을 타고 소양정으로 달려가니, 소양강 물은 푸르고 달은 마침 반달이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조준은 상심했던 마음을 소양정에 올라 반달이 비치는 소양강 푸른 물을 보며 달랬던 것입니다.

조선전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강원도 춘천의 누정 중에서 소양정이 첫 번째로 올라있습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조선 전기에 국가 주도로 편찬한 인문지리지입니다. 역시 소양정은 춘천을 대표하는 누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소양정의 이름이 '이요루'로 되어 있습니다. 곧 '이요루'는 소양정의 별칭인 것입니다. 소양정은 '소양강 강에 있는 정자'라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요루'는 무슨 뜻일까요?

'이요루'에서 '루'는 '누각'의 의미입니다. '이요'는 '두 이'자와 '좋아할 요'자가 결합된 말입니다. '이요'는 '두 가지를 좋아하다'는 뜻인데요, 곧 '요산요수'를 의미합니다. '요산요수'는 '산을 좋아하고 강을 좋아한다.'라는 뜻이며, 두 가지는 곧 산과 강을 말합니다. 여기서 '산'은 봉의산을, '수'는 소양강을 가리킵니다. 곧 '이요루'가 봉의산과 소양강의 멋진 풍경을 모두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요산요수는 <<논어>>에 나오는 "지혜로운 사람은 강을 좋아하고,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라는 공자의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조선후기 소양정 중건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유원의 <<임하필기>>에 따르면, 조선 시대에 소양정은 소양강이 범람하면서 두 차례 유실되었습니다. 1605년 소양강이 범람하면서 소양정이 떠내려갔습니다. 그 뒤에 1610년 춘천 부사 이희담이 다시 소양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1777년 또다시 소양강에 홍수가 발생하여 소양정이 무너졌습니다. 3년 뒤 춘천 부사 이동형이 소양정을 다시 지었습니다. 소양정이 소양강가에 있다 보니, 소양강에 홍수가 발생하면 자주 유실되었던 것입니다. 1780년에 춘천 부사 이동형이 소양정을 중건할 때, 이동형은 지인 홍양호에게 편지를 보내서 소양정 중건에 대해 기록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동형은 옛터에서 400보 정도 떨어진 곳에 다시 소양정을 세웠습니다. 이동형이 왜 본래의 터에 다시 중건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래의 터가 홍수로 심하게 유실되어 근처에 새로운 터를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진은 20세기 초에 찍은 소양정과 소양강 사진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다리는 1933년에 완공된 소양교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소양정은 단층 건물이며 바로 소양강가에 인접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소양정이 소양강이 범람할 때마다 유실되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춘천의 소양정은 20세기 들어서도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이 책은 1927년에 간행된 <<강원도명소구적>>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일본에서 일본어로 편찬된 책인데요, 일종의 강원도 명승 여행안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이 책의 표지를 장식하는 것이 바로 춘천의 소양정입니다. <<강원도명소구적>>에는 강원도 명승지의 하나로 춘천 소양정도 실려 있습니다. 소양정이 책의 표지를 장식하였는데, 제일 첫 번째로 소개한 강원도 명승지도 바로 춘천의 소양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양정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사진을 수록해 두었습니다. 사진을 보면 소양정은 단층 건물로 소양강에 바로 인접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 글 첫 문장에서는 소양강 남쪽 언덕, 봉의산 북쪽 기슭에 위치해 있으며 삼국시대에 창건되었

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한 본래 이름이 소양정이었는데 중간에 ‘이요루’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지금 다시 본래 이름을 회복했다는 이름의 변천 과정을 기록해 두기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1912년에 간행된 이해조의 신소설 <<소양정>> 표지입니다. 신소설은 조선시대 소설과 근대 소설 사이의 과도기적 서사 양식으로 20세기 초에 주로 창작이 되었습니다. <<소양정>>은 1911년 9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65회에 걸쳐 <<매일신보>>에 연재되었습니다. 1912년 단행본 초판이 출판된 이후로 1923년 7판이 출판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소설입니다. 표지 그림에는 보름달 뜬 밤에 한 여인이 소양정에서 소양강으로 뛰어 내려는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의 사진은 20세기 초 일제강점기 때 촬영한 소양정 원경입니다. 아래는 최근 촬영한 소양정 원경입니다. 소양정 위치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멀리서 촬영하여 소양정이 잘 보이지 않지만, 소양정의 위치가 많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소양강 바로 옆의 언덕에 소양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봉의산 기슭으로 많이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양정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1966년 중건을 하였는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소양강가에 있었던 본래의 터에 도로가 생기면서 위치를 봉의산 높은 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위치를 산 쪽으로 이동시키다 보니, 단층으로 지을 경우 소양강의 멋진 풍경이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2층 누각 형태로 지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양정은 1984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소양정은 삼국시대에 처음 세워진 정자로 그 역사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역 관동지』, 강원도, 2007.
- 김풍기 외, 『강원의 누정 문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1.

2차시 조선시대 소양정의 명승 가치

학습 목표

- 조선 시대 소양정이 지닌 명승지로서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현재의 소양정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무너진 것을 1966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지금은 2층의 누각 형태인데, 불타기 전에는 단층의 정자 형태였습니다. 또한 지금은 소양강가에서 한참 떨어진 봉의산 기슭에 있지만, 본래는 소양강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양정은 원형의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지만, 오랜 역사와 명승지로서의 위상 덕분에 1984년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조선 시대에 소양정이 명승지로서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김상헌은 1635년 봄에 청평산을 비롯하여 춘천의 명소를 유람하고 <청평록>이라는 기행문을 지었습니다. 김상헌은 <청평록>에서, “우리나라에서 강호와 누정의 경치가 지역별로 으뜸이 되는 곳을 논해보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조선에서 이름난 누정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장단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김상헌이 들었던 조선의 누정은 춘천의 소양정을 비롯하여 평양의 연광정(練光亭), 안주의 백상루(百祥樓), 성천의 강선루(降仙樓), 함흥의 낙민정(樂民亭), 여주의 청심루(淸心樓) 등입니다.

먼저 평양의 대동강 가에 있는 연광정입니다. 연광정은 소양정처럼 강가에 위치해 있어서 시야가 탁 트여 대동강 풍경을 실컷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북적대는 마을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속세를 벗어난 듯한 맛이 부족한 게 흠이었습니다.

사진 왼쪽에는 강변에서 빨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보입니다. 이를 통해 연광정 가까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상헌이 살았던 조선 시대에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았던 듯합니다. 평양이 조선시대에도 대도시였던 데다가, 마을이 가까이 있어서 연광정 주변은 시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김상헌은 연광정이 좋은 정자이긴 하지만, 마을 가까이에 있어서 속세에서 벗어난 듯한 느낌이 적은 게 단점이라고 지적 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안주의 백상루입니다. 김상헌은 백상루가 건물이 크고 화려하며 마치 허공 위에 앉아 있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진은 20세기 초에 찍은 백상루 사진입니다. 백상루는

언덕 위에 2층 누각으로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하게 서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조선 시대 조익필이 그린 백상루 그림입니다. 가운데 우뚝하게 솟은 것이 백상루입니다. 주변으로 성곽이 있는데 이것은 안주 읍성입니다. 안주성은 고구려 장수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을 치른 곳으로, 국경과 가까워서 외적의 침입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백상루는 고려시대 때 외적이 침입하면 장수가 전투를 지휘하는 지휘소 역할을 하였습니다. 김상헌은 백상루가 ‘변방의 감개한 생각을 듣게 하는 것’이 단점이라 하였습니다. ‘변방’은 바로 국경을 말합니다. 곧 백상루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 전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온전히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편안하게 풍류를 즐길 수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여주의 청심루입니다. 청심루는 여주 객사의 북쪽, 곧 여주를 지나는 남한강 가에 있었던 누각입니다. 객사는 외국 사신이나 공무로 온 관리들을 대접하고 묵게 하였던 숙소입니다. 청심루는 현재 건물은 없어지고 터만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18세기 중엽에 제작된 <<해동지도>>의 여주목 부분입니다. 가운데 강가에 위치한 것이 바로 청심루입니다. 객사에 머물던 사람들은 청심루에 올라 심신의 피로를 풀곤 하였을 것입니다. 김상헌은 청심루가 마을 속에 있지만 번잡하지 않고, 주변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답답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청심루는 하늘과 땅이 만들어 낸 천연의 자연미를 즐기기에 부족한 것이 흠이었습니다. 이처럼 김상헌은 평양의 연광정, 안주의 백상루, 여주의 청심루 등 유명한 누정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조목조목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소양정에 오른 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소양정 앞으로 긴 강물이 내려다보이며 앞에는 너른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가까이로는 바위 골짜기에 의지해 있고 멀리로는 여러 산봉우리를 끌어당겨 청신하고 안온하며 그윽하였다. 신유와 몽상은 아마도 이 소양정이 으뜸일 것이다.”

소양정에서 바라본 풍경 사진입니다. 김상헌은 ‘신유(神遊)’와 ‘몽상(夢想)’의 측면에서 보면, 소양정이 최고의 누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유는 형체는 움직이지 않고 정신이 먼 곳을 향해 가서 노니는 것을 말합니다. 몽상은 현실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일을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김상헌은 소양정에 올라 정신이 자유롭게 노닐고, 현실에서 이루기 어려운 일을 상상 속에서 이루는 즐거움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조선 중기의 김상헌이 조선의 유명한 여러 누정과 소양정을 비교했다면, 조선 후기의 성해응은 강릉의 경포대와 춘천의 소양정을 비교하였습니다. 성해응은 <소양정기>라는 글을 지었는데, 이 글의 서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춘천의 산수가 나라에서 이름난 이유는 소양강이 있기 때문이다. 소양강 가에는 정자가 있어 ‘소양정’이라 부르는데 역사가 오래되었다.”

춘천의 산수가 유명한 것은 소양강이 있기 때문이며, 소양정에 올라 보면 소양강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성해응은 강릉의 경포대와 춘천의 소양정을 비교하였습니다.

“큰 고개를 넘어 동쪽으로 가면 강릉의 경포대가 있는데, 노니며 빼어난 경치를 관람하는 것이 이 소양정과 막상막하이다. 춘천과 강릉에는 각각 대부(大府)를 설치하여 고을을 다스리며 두 고을 모두 승경을 조망할 수 있는 큰 누대를 가지고 있다.”

큰 고개는 대관령을 가리킵니다. 강원도는 대관령을 기준으로 동쪽을 영동지방, 서쪽을 영서지방으로 나눕니다. 영동지방에 강릉의 경포대가 있다면 영서지방에는 춘천의 소양정이 있습니다. 강릉은 영동지방에서 가장 큰 고을입니다. 춘천은 영서지방에서 가장 큰 고을입니다. 성해응은 강원도의 누정 중에서 춘천의 소양정을 강릉의 경포대와 함께 막상막하로 꼽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경기 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이동 거리상 강릉의 경포대에 가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해응은 “경포대는 큰 고개 너머의 궁벽한 곳에 위치하여 험한 산길을 넘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벼슬하는 자나 빼어난 승경을 좋아하는 자들이 능히 유람할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경포대에 가려면 거리도 멀고 험준한 대관령을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벼슬을 하는 자들이 잠시 산수 유람을 나서기에 경포대는 부담스러운 곳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반해 춘천은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100리 정도 거리입니다. 실제로 김상헌은 경기도의 집에서 춘천의 청평산을 유람하고 돌아오는 데에 일주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춘천의 멋진 산수를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뷰 포인트가 바로 소양정입니다. 그래서 성해응은 “춘천은 경기 지방에서 백여 리 정도로 가깝고 또 토지도 비옥하다. 산과 강이 더욱 아름다운데 이 소양정에 오르면 한 번에 모두 조망할 수 있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찍은 소양정 사진엽서 중 하나입니다. 봉의산에서 내려다 본 소양정과 소양강의 풍경입니다. 당시 춘천에 유람을 온 사람들이 춘천에 들어서면 먼저 소양정의 위치를 물었다고 합니다. 춘천의 경치를 감상하는 데는 소양정이 최고의 명소였던 것입니다.

이 글은 1940년에 간행된 <<강원도지>>에 실려 있는 이학규가 지은 소양정 중수기의 일부입니다. 이학규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춘천으로 가는 도로가 개통된 이래 많은 사람들이 춘천의 산수를 구경하러 왔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춘천의 소양정이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욱 많이 알려지기를 기대해

됩니다.

【참고문헌】

- 『국역 관동지』, 강원도, 2007.
- 김풍기 외, 『강원의 누정 문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1.

3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매월당 김시습

학습 목표

- 김시습과 소양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김시습이 지은 소양정 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소양정은 조선 전기의 뛰어난 문인 김시습과 인연이 있습니다. 김시습은 5세 때 시를 지어서 세종대왕으로부터 크게 칭찬을 받았을 정도로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나 1455년 21세 때 삼각산 중흥사에서 공부하던 중, 수양대군이 조카인 단종을 쫓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시습은 3일간 통곡하다가 보던 책을 모두 불사르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이후 김시습은 세상을 등지고 전국의 산사를 떠돌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김시습은 승려가 되어 전국의 산사를 떠돌아다니던 중, 1481년 47세 때 머리를 다시 기르고 부인을 맞아 세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성종의 왕비였던 윤씨가 사사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시습은 세상에 대해 염증을 느끼고 또다시 방랑길에 나섰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강원도였습니다. 김시습은 춘천의 청평사에 머무르면서 소양정에 오르곤 하였습니다. 이때 지은 시들이 김시습의 문집인 <<매월당시집>>의 <관동일록>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습니다.

<관동일록>에는 소양강과 소양정을 읊은 시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김시습은 평생을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고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습니다. 보시는 것은 김시습을 그린 초상화인데요. 화가와 그린 시기는 미상입니다. 김시습 초상화는 본래 강원도 설악산 오세암에 걸려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 후기의 문인 서유영은 설악산 오세암에서 이 초상화를 보고 시를 남겼습니다. 오세암은 김시습이 은거할 때 머물던 곳 중의 하나였습니다. 서유영은 시에서 “찌푸린 눈썹에 우수 띤 얼굴”이라 하였습니다. 세상의 부정에 타협하지 않고 방랑의 삶을 살았던 그의 인生在이 초상화로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

김시습의 인생은 스스로 지은 호에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이름 외에도 자(字)와 호(號) 등 호칭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름은 세상에 태어나 부여받은 호칭입니다. 자

는 15~20세 때 관례, 곧 성인식을 치른 뒤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부여받은 호칭입니다. 이름과 자는 남들이 지어준 호칭인데 반해, 호는 스스로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짓는 것을 ‘자호(自號)’라고 하였는데요. 자신의 정체성과 인생 지향을 자호에 담아냈습니다.

‘시습’이라는 이름은 <<논어>>의 첫 장에 나오는 “배우고 수시로 익히면 참으로 즐겁지 않은가”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는 이름과 관련된 의미로 짓는데요, ‘열경’ 역시 같은 <<논어>> 구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김시습의 자인 ‘열경’에서 ‘열’자는 ‘기쁘다’는 뜻이고, ‘경’자는 남자에게 붙여주는 존칭입니다. 김시습은 청한자, 매월당, 동봉, 취세옹 등 여러 가지 자호를 지었습니다. 청한자는 벼슬을 하지 않고 청빈한 삶을 살겠다는 의미이고, 취세옹은 세상에 쓸모없는 흑부리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김시습이 세상을 등지고 은거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자호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나 호는 조선 시대 일반적인 사대부 문인들이 모두 가지고 있었던 호칭입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세조가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은 사건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습니다. 김시습은 유학자로 살기를 거부한 것인데도, ‘설잠’이라는 법명을 지었습니다. 법명은 승려의 호칭을 말합니다. ‘설잠’의 의미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김시습이 죽고 거의 300년 뒤에 정조는 김시습에게 ‘이조판서’라는 높은 벼슬을 주고, ‘청간’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습니다. 시호는 높은 관직을 역임하거나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죽은 뒤에 그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내려주는 호칭입니다. 정조는 김시습이 불의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았던 점을 높이 평가하여 ‘청간’이라는 시호를 내려주었던 것입니다.

김시습은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의 인생>이라는 장편시를 지었습니다. “태어나 사람이 되었거늘, 어찌하여 사람 도리 다하지 못하였나?”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시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혼탁한 정치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도 인간의 도리를 지키고자 고군분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성군의 정치, 인간이 도리를 지키며 사는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김시습은 자신이 죽은 뒤에 비석에 ‘꿈꾸다 죽은 늙은이’라고 써 주고, 천년 뒤라 할지라도 후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이는 1582년 선조의 명을 받아 김시습의 전기를 집필하였습니다. 이이는 김시습의 생애를 ‘심유적불’, 곧 마음은 유교, 행적은 불교로 요약하였습니다. 김시습이 겉으로는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지만, 안으로는 유학의 도를 유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면, 유교와 불교를 넘나들었습니다. 그가 지은 저술을 보

더라도, 임금의 도리와 백성을 위한 정치를 논설한 〈인군의〉와 〈애민의〉 등을 지었습니다. 더욱이 〈신귀설〉과 〈태극설〉 같은 글에서는 불교와 도교의 신비주의를 비판하였습니다. 반면에 김시습은 〈〈묘법연화경별찬〉〉, 〈〈화엄경석제〉〉 등과 같은 불교 저술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김시습은 유교와 불교를 넘어 인간의 삶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자는 중국 방방곡곡을 떠돌며 유교의 도를 설교했지만, 죽어서 무덤에 묻혀있을 뿐입니다. 부처는 수많은 제자들을 가르친 연설이 불경에 기록되어 있으나, 죽어서 한 줌의 재가 되었을 뿐입니다. 김시습은 유교의 성인 공자, 불교의 성인 부처의 삶을 모두 허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단히 염세적인 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교든 불교든, 공자든 부처든 그들이 추구한 세상은 인간의 도리가 행해지는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김시습은 이 시에는 당대의 현실이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김시습은 정의롭지 못한 세상에 대한 염증, 인간의 삶에 대한 회의 등으로 괴로워하며 강원도 춘천을 찾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은 김시습이 춘천으로 와서 청평사에서 지낼 때 지은 〈나그네〉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나그네는 정처 없이 이곳저곳을 떠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김시습의 「나그네」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나그네 청평사에 찾아 왔으니 / 봄 산에서 마음 가는 대로 노니네 / 새 울어도 외론 탐은 고요하고 / 꽃이 저도 작은 시냇 흘러만 가네 / 맛난 나물 철을 알아 빼어나고 / 향긋한 버섯은 비 온 뒤 연하네 / 시 읊조리며 선동으로 들어가니 / 인생 백년의 시름 사라지누나”

청평사는 춘천의 청평산에 있는 절입니다. 고려전기에 창건되었습니다. 청평산과 청평사는 고려전기의 귀족 이자현이 벼슬을 버리고 이곳에 은거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김시습은 이자현이 그랬던 것처럼, 청평사에서 봄날의 한적함을 즐기며 시를 읊조렸습니다. 특히 선동으로 들어가며 삶의 시름을 떨쳐버렸습니다. ‘선동’은 신선이 사는 골짜기라는 뜻인데요, 이자현이 붙인 이름입니다. 김시습은 청평산에 머물면서 이자현이 그랬던 것처럼 세속의 번뇌를 잊고자 한 것입니다.

김시습은 춘천에서 지내며 소양정에 올라 여러 편의 시를 지었습니다. 〈소양정에 올라[暎昭陽亭]〉란 제목으로 칠언율시를 지은 것이 있고, 또 같은 제목으로 오언율시 세 편을 연속해서 지은 것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오언율시로 지은 세 편입니다. 오언율시로 지은 세 편 중에서 첫 번째 시를 읽어 보겠습니다.

“새가 나는 저쪽에 하늘은 다하건만 / 근심 곁에 한스러움은 그치질 않네 / 산은 대부분

북쪽에서 굽어 오고 / 강은 절로 서쪽을 향해 흘러가네 / 기러기는 아스라한 모래톱으로 내려앉고 / 배는 그윽한 옛 언덕으로 돌아오네 / 어느 때에야 세상 그물을 던져 버리고 / 흥에 겨워 다시 여기 와서 놀거나”

소양정 뒤로는 봉의산, 앞으로는 소양강이 흐릅니다. 강 건너로는 우두 별판이 펼쳐져 있으며, 그 북쪽으로는 첩첩 산봉우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소양정에 오른 김시습의 시선은 저 멀리 하늘로부터 소양강 가에 정박하는 배까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통 때라면 소양정에 올라 풍경을 감상하고 지인들과 시를 짓고 술을 마시며 흥겹게 풍류를 즐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시습은 정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세상에 대한 고민이 깊어 흥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김시습은 7구와 8구에서 마음속 번뇌를 모두 벗어버리고, 소양정에 다시 올라 산수를 감상하며 풍류를 즐길 날을 희구한 것입니다.

조선중기의 문인 허균은 소양정을 읊은 시 중에서 김시습이 지은 시를 최고의 걸작으로 꼽았습니다. 허균은 김시습의 소양정 시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세속의 기질을 모두 떨쳐버려서 화평하고 담아하다. 자잘하게 시구나 다듬는 자들은 당연히 김시습에게 앞자리를 양보해야 할 것이다.”

허균은 김시습의 소양정 시가 뛰어난 이유로 ‘세속의 기질이 없이 화평하고 담아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누정에 올라 지은 시들이 대개 세속적 풍류를 즐긴다거나 반대로 탈속적인 면모를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김시습 시에는 세속적 풍류도, 과장된 탈속적인 면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담박하게 인생의 우수를 노래하였을 뿐입니다. 허균은 이 점을 바로 높게 평가한 것입니다.

조선후기의 뛰어난 시인 김창흡도 김시습의 소양정 시에 대하여 허균과 비슷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김창흡도 혼탁한 정치 상황에 염증을 느끼고 강원도에 오래도록 은거하였는데요. 당연히 춘천의 소양정에도 들렀습니다. 김창흡은 소양정에 올라 김시습의 자취를 떠올리며 그가 지은 시를 감상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김시습의 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습니다.

“이 시는 흥을 붙인 것이 심원하고 경치를 묘사한 것이 짙진하니, 소양정을 읊은 시중에 마땅히 가장 윗자리에 두어야 할 것이다.”

김창흡은 김시습이 자신의 감정을 깊이 있게 담아낸 점, 소양강에서 바라본 주변의 경관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점 등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소양정에는 김시습의 시를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옛날의 소양정은 1950년 한국 전쟁 때 불에 타서 1966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김시습의 소양정 시 현판 역시 최근에

써서 새롭게 걸었습니다. 이처럼 소양정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김시습이라는 걸출한 인물과 그가 지은 시를 통해 명승의 가치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 『국역 매월당집』,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07.
- 김풍기 외, 『강원의 누정 문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1.

4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김상헌 가문

학습 목표

- 소양정과 김상헌 가문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김상헌 가문이 지은 소양정 시문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누정이 명승지로 이름이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누정 주변의 자연경관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또한 누정이 건축학적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유명한 인물과 특별한 인연을 맺는다가, 뛰어난 문인이 시나 글을 남긴다가, 화가가 생생하게 화폭에 담아낸다가, 이러한 인문적 요소가 더해질 때 누정은 특별한 의미가 더해지고 명승지로서 가치가 더욱 올라갑니다. 춘천의 소양정은 조선 후기에 김상헌으로부터 김창협과 김창흡으로 이어지는 안동 김씨 가문과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춘천의 소양정과 김상헌 가문의 관계, 김상헌 가문이 창작한 소양정 관련 시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헌은 인조 임금 때의 훌륭한 신하입니다. 김상헌은 병자호란이 발생하기 한 해 전인 1635년 봄에 청평산을 비롯한 춘천의 명소를 유람하였습니다. 김상헌이 춘천의 청평산으로 유람을 떠난 것은 바로 조정의 관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정치 현실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김상헌은 춘천을 유람하고 <<청평록>>이라는 기행문을 지었습니다. <<청평록>>에는 1635년 음력 3월 8일부터 14일까지 그날그날의 여정과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양정과 같은 명소를 유람하며 느낀 시도 함께 적어 놓았습니다.

김상헌은 음력 3월 11일 소양정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삼월에 소양강 가에 있는 정자 올라보니 / 정자 앞의 풍경 정말 노닐기에 좋아라 / 대지 드넓고 하늘 높아 등왕각과 흡사하고 / 강물 맑고 모래 희어 기주와도 비슷하네 / 살구꽃은 이미 지고 복사꽃도 저 가는데 / 왕손계선 아니 와서 봄풀들은 시름하네 / 술 취해 기동에 기대 휘파람 길게 부니 / 서산마루 지는 해는 우두산에 빛을 쏘네”

김상헌은 음력 3월 늦봄에서 초여름에 춘천을 찾았습니다. 소양강물은 불어나 맑아지고 소양강 건너 우두 벌판은 드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우두산에는 신록이 짙어

지는 좋은 시절입니다. 그리하여 김상헌은 소양정을 등왕각에, 춘천을 기주에 견주었습니다. 등왕각은 당나라 때 세워졌으며 중국의 4대 명루로 꼽히는 누각입니다. 기주는 중국 사천성에 있는 지명인데요. 당나라의 대시인 두보가 기주의 산천을 매우 좋아하였습니다. 김상헌은 춘천과 소양정이 중국의 기주와 등왕각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멋진 고을과 정자임을 자부한 것입니다.

김상헌은 소양정에 올라 풍경을 만끽하다가 마음 한편으로 쓸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구꽃은 이미 족고 복사꽃도 시들었습니다. 김상헌이 우수에 젖은 것은 예쁜 꽃들이 모두 시들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6구에서 왕손께서 오지 않아 봄풀들이 시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고향을 떠나있는 나그네의 수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김상헌은 즐거운 마음으로 춘천에 유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관료들과는 같듯이 생기고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상헌은 임금이 계속해서 벼슬을 내려주어도 사직하고 관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김상헌은 소양정에 올라 봄날의 풍경을 감상하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즐길 수 없었습니다. 소양정에서 술에 취해 지는 해를 바라보며 길게 휘파람을 불며 마음속 시름을 날려 보냈던 것입니다.

김상헌의 증손인 김창협 역시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한 염증을 잊고자 소양정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김창협은 숙종 임금 때의 관료이자 학자였습니다. 숙종 때는 조선의 역사에서 붕당 간의 반목과 대립이 가장 극심하였던 시기입니다. 붕당은 일종의 정치적 동지 집단인데요. 숙종 때 붕당 간의 다툼으로 정치적 보복이 반복되면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김창협 집안은 서인과 노론을 대표하는 가문으로 중앙 정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김창협은 1689년 39세 때 청풍 부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아버지 김수항이 진도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사사되었습니다. 이후 김창협은 벼슬에서 사직하고 경기도 영평, 오늘날의 경기도 포천에 은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창협은 1696년 46세 때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강원도 원주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춘천을 둘러보았습니다. 이때 소양정에 올라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습니다.

“지난날 우리 증조부 이 누정에 올랐는데 / 육십이 년 만에 내가 다시 유람을 왔네 / 오래도록 경치 좋다는 소리 믿고 있었는데 / 직접 와보니 좋은 풍광 딴 고을을 압도하네 / 사방 들린 먼 산은 그림처럼 펼쳐져 있고 / 일백 자 맑은 강은 객의 시름 씻어주니 / 한 잔 술 마신 뒤에 말에 올라 떠나려다 / 난간 서쪽 모퉁이서 고개 돌려 다시 보네”

제목은 보면 “증조부의 시에 삼가 차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증조부는 김상헌을 가리키며, ‘차운하다’는 것은 증조부가 지은 시의 운자를 그대로 가져다 썼다는 말입니다. 운자는 일종의 라임인데요. 한시에서 대개 짝수 구의 마지막 글자에 라임이 같은 글자를 놓아 음악적인 효과를 냅니다. 1구가 7자로 되어 있는 칠언시의 경우 첫째 구에도 운자를 놓습

니다. 김상헌이 소양정에 오른 것이 1635년이고, 김창협이 찾은 것은 1696년입니다. 1구와 2구는 이를 두고 한 말입니다.

김창협은 소양정의 명성을 익히 들었는데, 직접 와보니 산수가 과연 다른 고을을 압도할 정도로 풍광이 좋다고 경탄하였습니다. 7구와 8구는 소양정에 올라 한잔 술에 나그네 시름을 달랜 뒤 못내 아쉬워서 쉬이 발길을 떠나지 못하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김창협은 이때 <동정기>라는 기행문도 지었습니다. <동정기>를 보면 김창협은 음력 8월 19일과 20일 이틀 연속으로 소양정에 올랐습니다. 김창협에게 소양정은 그만큼 의미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소양정이 명승지로 이름이 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증조부인 김상헌이 들려서 시를 지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김상헌과 김창협이 소양정을 찾았던 시기 둘의 정치적 상황이 비슷하기까지 합니다. 김창협은 증조부의 자취를 따라가며 세상사의 시름을 잊고, 앞으로의 인생의 행로를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김상헌의 증손이자 김창협의 동생인 김창흠 역시 소양정에 들러 시를 남겼습니다. 김창흠도 김창협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당쟁에 염증을 느껴, 강원도 인제와 화천 등에서 은거 생활을 했습니다. 춘천이나 강릉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김창흠은 김창협과 마찬가지로 증조부 김상헌이 지은 시를 차운하여 시를 지었습니다.

“소양강 가에 높다란 누정 있는데 / 우리 선조 오셔서 노닐 만하다 하셨지 / 금대의 요지인지라 한남 땅에는 없고 / 아름다운 풍경 패서를 압도하는구나 / 강물 비친 기둥 일렁이고 물고기 즐거운데 / 희미한 모래톱 지나는 기러기 시름 져게 하네 / 북쪽 바라보니 아득하여 여운이 이는데 / 푸른 아지랑이 경운산 위로 떠오르네”

2구의 ‘우리 선조’는 증조부인 김상헌을 가리킵니다. 김창흠은 선조가 말한 것처럼 춘천의 소양정이 참으로 노닐 만한 곳을 인정하였습니다. 3구의 ‘금대’는 옷깃과 허리띠라는 뜻인데, 춘천은 험한 산세가 옷깃처럼 감싸고 강물이 허리띠처럼 두른 요충지로서 한강 남쪽에는 이런 지역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소양강은 북한강이라고도 하는데요, 서울까지 흘러가 한강을 이룹니다. 4구의 패서는 평안도를 가리킵니다. 평안도에는 평양의 연광정이나 안주의 백상루처럼 유명한 누정이 많습니다. 춘천의 소양정이 연광정이나 백상루를 압도할 정도로 멋진 정자임을 말한 것입니다. 김창흠은 쓸쓸한 마음으로 북쪽의 경운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운산은 청평산의 다른 이름으로 고려시대의 은사 이자현이 은거하였던 곳입니다. 김창흠이 북쪽의 청평산을 바라보는 것은 은사 이자현을 발자취를 따라가고자 한 것입니다.

김창흠은 증조부 김상헌과 형 김창협이 그랬듯이, 소양정에 올라 마냥 풍류를 즐길 수만은 없습니다. 강에는 물고기가 즐겁게 노닐고 있지만, 자신은 객지를 떠도는 나그네 신세였기 때문입니다.

김상헌의 소양정 시는 가문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김창협이 제자인 어유봉과 이하곤 등에 게서도 확인이 됩니다. 어유봉은 소양정에 현판으로 걸려 있는 김상헌의 시를 보고 차운하였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당시 소양정에 김상헌의 시가 걸려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창협의 문인 이하곤은 김창협의 소양강 시에 차운한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김창협은 증조부 김상헌을 차운하였으므로 결국 이하곤 역시 김상헌의 시를 차운한 것입니다.

이하곤의 소양정 시는 1714년 38세 때에 지은 것입니다. 이 해 음력 3월에 이하곤은 관동지방을 유람하고 금강산을 다녀와 <동유록>이란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동유록>을 보면, 이하곤은 음력 3월 24일 소양정에 올랐으며, “강과 산이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안개 낀 나무들이 아득하여 참으로 그림 같은 풍경이다.”라고 감탄하였습니다.

현재 소양정에는 김창협의 소양정 시를 쓴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옛날의 소양정은 1950년 한국전쟁 때 불에 타서 1966년에 다시 세운 것입니다. 김창협의 시 현판 역시 최근에 써서 새롭게 걸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대학자 정약용은 1820년과 1823년에 두 차례 춘천을 유람하였습니다. 1823년에는 <<산행일기>>라는 기행문을 남겼는데요. 이때 정약용은 김상헌의 시를 비롯하여 김창협과 김창흡 형제의 시를 써서 소양정에 걸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소양정에 김창협의 시를 쓴 현판을 걸어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기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김상헌과 김창협의 시는 걸려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김창흡이 조선 후기에 뛰어난 시인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양정은 김상헌 가문에게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창협의 제자들에게도 확장되어 하나의 의미 있는 장소로 재인식된 것입니다.

【참고문헌】

- 김풍기 외, 『강원의 누정 문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1.
- 이승은, 「조선후기 유람기를 통해 본 춘천 인식」, 『한문고전연구』 43, 한국한문고전학회, 2021, 125-154쪽.

5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다산 정약용

학습 목표

- 정약용의 춘천 여행을 설명할 수 있다.
- 정약용이 지은 소양정 관련 시문을 설명할 수 있다.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학자인데요, 소양정이 있는 춘천과 인연이 깊습니다. 정약용은 1820년과 1823년 두 차례나 춘천을 방문하였습니다. 두 차례 춘천에 왔을 때 당연히 소양정에 올라 풍경을 감상하고 시문을 지었습니다. 정약용의 두 차례 춘천 기행, 정약용이 지은 소양정 관련 시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약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약용은 현재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약용은 일찍부터 정조의 총애를 받으며, 채제공과 이가환을 이을 남인의 핵심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반대파들은 정약용을 천주교와 연루시켜 끊임없이 공격하였습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였기 때문에 관리가 천주교와 관련을 맺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1800년 조정에서 천주교 문제로 반대파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자, 정약용은 벼슬을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인 1801년 정조가 승하하자 천주교인에 대해 대대적인 처벌이 벌어졌습니다. 정약용은 형제 중에 천주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연루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정약용은 60세 환갑이 되었을 때, 자신의 묘지명을 직접 서술하며 지나온 생애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때 육경과 사서의 유교 경전으로 자신을 수양하고, 1표와 2서로 국가를 다스리는 지침을 만들었다고 회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표는 <<경세유표>>를 가리키며, 2서는 <<목민심서>>와 <<흠흠신서>>를 가리킵니다. 이들 저술에는 당대 조선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국정을 혁신할 수 있는 개혁안이 담겨 있습니다.

정약용은 고향에서 지내며 두 차례 춘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1820년 큰형 정약현이 그의 둘째 아들 학순(學淳)을 데리고 춘천으로 며느리를 맞이하러 갈 때 정약용도 따라갔습니다. 이때 정약용은 춘천을 다녀오며 지은 시를 모아 <<천우기행권>>이라는 시집을 엮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이 시집에 실려 있는 시구 중 일부입니다.

“곧장 북으로 우수를 관통하며 다시 북동쪽으로 / 첩첩 산봉우리 속에 맑은 강물이 십 리로다”

‘천우’는 한자로 ‘뚫을 천’자와 ‘소 우’자를 결합한 말인데요. ‘우’자는 춘천의 옛 이름인 ‘우수’를 가리킵니다. 곧 ‘천우’는 ‘춘천을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정약용의 고향은 한강가에 있었는데요. 정약용은 배를 타고 첩첩산중과 굽이굽이 물길을 따라 춘천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마치 구멍을 뚫는 것과 같다고 본 것입니다.

다음은 정약용이 1820년 첫 번째로 춘천에 갔을 때, 소양정에 올라 지은 시입니다.

“어부가 도화원 찾아 동천으로 들어가니 / 화려한 누각 나는 듯이 만정 앞에 솟았네 / 궁씨와 유씨 나눠 점령한 건 전혀 자취가 없고 / 한과 맥이 서로 다툼 건 끝내 가련할 뿐 일세 / 우수의 옛 벌판에는 봄풀이 아득하고 / 인제에서 오는 강물에 떨어진 꽃잎 고와라 / 비단으로 싸거나 소매 터는 게 무슨 보탬이 되랴 / 석양에 강가의 버들에서 홀로 닳줄 푸노라”

1구와 2구에서 배를 타고 소양정에 도착한 것을 마치 어부가 도화원을 찾아 동천으로 들어간 것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도화원’은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에 나오는 이상향을 말합니다. 중국 진나라 때 무릉에 사는 어떤 어부가 복사꽃이 흘러 내려오는 강물 길을 따라 거슬러 올라갔더니, 진시황의 가혹한 정치를 피해 온 사람들이 순박하게 사는 마을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곳을 무릉도원이라고 부릅니다. ‘동천(洞天)’은 신선이 사는 곳을 뜻하는데요. 천하의 빼어난 승경을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정약용에게 춘천 여행은 혼탁한 세상을 떠나 순박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으로, 경치가 빼어난 신선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은 3구와 4구에서 과거의 역사를 떠올립니다. 시의 제목이 <소양정 회고>입니다. ‘소양정에서 역사를 떠올리다’라는 뜻입니다. 3구의 궁씨와 유씨는 낙랑 태수 유무와 대방 태수 궁준을 가리킵니다. 낙랑과 대방은 중국 한나라가 고대 한반도에 설치한 4개의 점령지였는데요. 춘천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4구의 한과 맥은 고대 한반도에 있었던 진한이라는 나라와 춘천을 근거지로 하였던 맥국을 말합니다. 궁씨와 유씨가 춘천을 점령하고 북으로는 고구려와 마주하고 남으로 진한을 공격하였습니다. 곧 정약용은 소양정에 올라 춘천을 근거지로 하였던 고대 국가들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에 흥성했던 국가들은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리고, 정약용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저 우수의 벌판에 풀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소양강물은 인간의 흥망성쇠와는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7구는 소양정에 걸려 있는 현판을 보고 인간사의 무상함을 느끼며 감회에 젖은 것입니다.

옛날 중국 송나라 때 위야라는 사람이 구준과 함께 어느 사찰에 가서 각각 시를 지어 남겨 두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위야와 구준이 다시 그 사찰에 가보니, 구준이 지은 시는 비단으로 잘 싸서 보관하였고, 위야가 지은 시는 방치하여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때 위야가 데리고 간 미인이 위야가 쓴 시에 쌓인 먼지를 소매로 털었다고 합니다. 정약용이 소양정에 올라 구준처럼 훌륭한 시를 짓든, 위야처럼 볼품없는 시를 짓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좋은 시를 지어 소양정에 시를 걸었다 한들,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그것은 미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의 소양정 시는 춘천의 멋진 자연경관을 그리면서도 춘천이 지닌 역사를 회고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할 것입니다.

보시는 것은 <<산행일기>>의 서문 일부입니다. 정약용은 1823년에 춘천을 다시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학연이 손자 대림(大林)을 데리고 며느리를 맞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때 정약용은 <<산행일기>>라는 기행문을 지었습니다. '산행일기'에서 '산'자는 '산수'로, 곧 춘천을 끼고 흐르는 북한강을 말합니다. 정약용은 첫 번째 춘천 여행과 마찬가지로 배를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내심 인제의 한계산과 화천의 곡운까지 가보려고 하였습니다. 한계산은 곧 설악산을 말하며, 곡운은 조선후기의 김수증이 은거했던 곳입니다. 북한강은 상류가 각각 인제의 한계산과 화천의 곡운에도 닿아 있습니다. 춘천의 소양정 부근에서 인제에서 내려오는 소양강과 화천에서 내려오는 장양강이 합쳐 집니다. 이 때문에 기행문의 제목을 <<산행일기>>라 지은 것입니다.

<<산행일기>> 서문을 계속 보겠습니다. 정약용은 두 번째로 춘천을 여행할 때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습니다. 일단 배를 2대 마련해서 1대는 자신이 타고, 또 다른 1대는 아들 학연이 탔습니다. 두 배는 집처럼 방을 만들었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기둥에는 글귀를 써서 운치를 더했습니다.

정약용은 배 위의 집에 '산수록재'라는 이름을 써 붙였는데, '푸른 산과 강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들 학연의 배 기둥에는 '물에 뜬 집', '불에서 자고 바람을 먹는다' 등을 썼습니다. 배가 단순히 교통수단일 뿐만 아니라, 숙식을 해결하는 집도 되고 산수를 감상하는, 풍류를 즐기는 공간도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시 <<산행일기>>의 서문 중 일부입니다.

정약용은 두 번째 춘천 여행에서는 화가를 데리고 가면서 멋진 풍경을 그릴 계획도 세웠습니다. 첫 번째 춘천을 다녀올 때, 멋진 풍경을 시문으로만 묘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못내 아쉬웠던 것입니다. 더욱이 두 번째 여행에서는 화천의 곡운구곡과 인제의 한계산까지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방우도란 사람이 산수화를 잘 그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들 학연을 보내 모셔오게 하였습니다. 다행히 방우도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우도는 몸살감기에 걸려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대단히 아쉬워했습니다.

정약용의 두 번째 춘천 여행길에는 많은 지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정약용이

남양주에 있는 집에서 배를 타고 북한강을 거슬러 춘천으로 올라간 여정을 오늘날의 지도에 표시해 본 것입니다. 음력 4월 15일에 출발하여 이틀 뒤인 17일에 춘천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은 <<산행일기>>의 음력 4월 20일자 소양정과 관련된 기록입니다. 정약용은 친구 이재의를 비롯하여 일행과 소양정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춘천 여행에서 정약용은 따로 소양정 시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앞서 소양정을 다녀간 선배 문인들의 소양정 시를 깨끗하게 써서 소양정에 걸었습니다. 아울러 첫 번째 춘천에 왔을 때 지은 자신의 소양정 시도 함께 걸었습니다. 정약용 일행은 소양정에서 내려와 소양강에 배를 띄워놓고 일행과 함께 뱃놀이를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 소양정에는 정약용이 지은 소양정 시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사진은 현재 소양정에 걸려 있는 김시습과 김창흡의 시이고, 아래쪽은 이재와 조재호의 시입니다. 소양정 시문의 현판을 복원하는 데에 정약용의 <<산행일기>>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문헌】

- 김풍기 외, 『강원의 누정 문화』, 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21.
- 이승은, 「조선후기 유람기를 통해 본 춘천 인식」, 『한문고전연구』 43, 한국한문고전학회, 2021, 125-154쪽.

Lecture

1차시 소양정의 어제와 오늘

A nugak is a two-story or more mid-rise structure with a tiled roof and is larger than a chŏngja. A chŏngja does not have many columns and the roof is often thatched. The current Soyangjŏng has a typical nugak architecture.

Let's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Soyangjŏng. Soyangjŏng is located in Ch'unch'ŏn, Gangwon Province. Ch'unch'ŏn is the capital of Gangwon Province and one of the largest cities in the province.

A view of the Soyang River from Soyangjŏng. The name of the chŏngja, 'Soyangjŏng', is derived from the name of the river, 'Soyanggang', which flows across the front of the chŏngja. In other words, 'Soyangjŏng' means 'a chŏngja by the Soyang River'.

The history of Soyangjŏng's founding and rebuilding is relatively well documented in a book, Entitled Imhap'ilgiby a late Chosŏn scholar Yi Yu-wŏn. Yi noted that Soyangjŏng is located on a hill along the Soyang River, And that it was found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based on folklore.

In his poem "Ch'unju" Wŏn writes, "I came to the Soyang River again, and climbed up on a nudae by the river, The springtime color of the nudae makes the view even more." Won's reference to "the nudae along the Soyang River" appears to be a reference to Soyangjŏng. This suggests that Soyangjŏng was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at least in late Koryŏ.

The chŏngja's name, Soyangjŏng, appears in a poem by a writer named Jo Joon, who lived in the late Koryŏ and early Chosŏn periods. In his poem, "Song of the Soyang River on a Spring Day," Cho Chun writes, "With a broken heart, I mounted my horse and rode to Soyangjŏng, The water of the Soyang River is blue and the moon is half-moon." Cho was trying to mend his broken heart by going up to Soyangjŏng and seeing the blue water of the Soyang River reflecting the half moon.

In Shinjüngdonggukyöjisüngnam, published in Chosön lists the nujong in Ch'unch'ön, Gangwon Province, Soyangjöng is listed first. Shinjüngdonggukyöjisüngnam is an atlas compiled by the state during Chosön. After all, Soyangjöng was a trough representing Ch'unch'ön.

However, in Shinjüngdonggukyöjisüngnam, Soyangjöng's name is listed as 'lyoru'. As Shinjüngdonggukyöjisüngnam was published around 1530, We can see that Soyangjöng was called 'lyoru' at this time. In other words, "lyoru" is a nickname for Soyangjöng. Soyangjöng means 'the chöngja on the Soyang River', so what does "lyoru" mean?

The 'ru' in 'lyoru' means 'nugak'. "lyo" is a combination of the characters "two l" and "like Yo". 'lyo' means 'liking two things', which means 'Yosanyosu'. "Yosanyosu" means "Liking mountains and Liking rivers," and the two means mountains and rivers. Here, 'mountain' refers to Mt. Pongüi and 'river' refers to the Soyang River. This means that 'lyoru' is a place where you can enjoy the stunning scenery of both Mt. Pongüi and the Soyang River. By the way, Yosanyosu is a reference to The Analects, which says "A wise man loves rivers, "The benevolent loves rivers" by Confucius.

Let's take a look at the history of Soyangjöng in late Chosön. According to Yi Yu-wön's Imhap'ilgi, during Chosön Soyangjöng was lost twice due to the flooding of the Soyang River. In 1605, the Soyang River flooded and Soyangjöng was swept away. Then in 1610, Yi Hüi-dam, the magistrate of Ch'unch'ön, built Soyangjöng again. Then, in 1777, the Soyang River flooded again and Soyangjöng collapsed. Three years later, Ch'unch'ön magistrate Yi Tong-hyöng rebuilt Soyangjöng. Since Soyangjöng was located along the Soyang River, it was often washed away when the river flooded. In 1780, when the Ch'unch'ön magistrate Yi rebuilt Soyangjöng, Yi wrote a letter to his acquaintance Hong Yang-ho and asked him to record the construction of Soyangjöng. Yi rebuilt Soyangjöng about 400 paces away from the original site. We don't know why he didn't rebuild on the original site. However, it is likely that the original site was severely damaged by the flood and a new site was found nearby.

This is a photo of Soyangjöng and the Soyang River taken in the early 20th

century. On the left side of the photo, the inscription below reads in Japanese, "(Ch'unch'ŏn attractions) Ch'unch'ŏn Soyangjŏng and Soyang Bridge". The bridge on the left is Soyang Bridge, which was completed in 1933. Unlike today, Soyangjŏng was a single-story building and was located directly adjacent to the Soyang River. Looking at this photo, it's easy to see why Soyangjŏng was washed away whenever the Soyang River flooded.

Ch'unch'ŏn's Soyangjŏng continued to maintain its reputation as a scenic spot well into the 20th century. This is a book named Kangwŏndomyŏngsogujŏk published in 1927. This book was compiled in Japan and written in Japanese. It's a kind of travel guide to the scenic spots of Gangwon Province. But what you should know is that the cover of this book is Soyangjŏng in Ch'unch'ŏn. In Kangwŏndomyŏngsogujŏk, Ch'unch'ŏn Soyangjŏng is listed as one of the scenic spots in Gangwon Province. Soyangjŏng decorates the cover of the book, and the first scenic spot in Gangwon Province is Soyangjŏng in Ch'unch'ŏn.

As you can see, we've included a brief introduction to Soyangjŏng along with a photo. In the photo, you can see that Soyangjŏng is a single-story building that sits right next to the Soyang River. The first sentence of the introduction states that it is located on a hill south of the Soyang River, at the northern foot of Mt. Pongŭi. And was founded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It also says that the original name was Soyangjŏng, but it was renamed to Iyuru in the middle. And now it has regained its original name again.

What you see here is the cover of Soyangjŏng, a novel by Yi Hae-jo, published in 1912. The 'new novel' is a transitional narrative style between the Chosŏn novel and the modern novel, It was mainly created in the early 20th century. The novel Soyangjŏng was serialized in the Maeil Newspaper in 65 installments between September 30 and December 17, 1911. The novel was so popular that the first paperback edition was published in 1912 and the seventh edition was published in 1923. The cover illustration depicts a woman about to jump from a boat into the Soyang River on a full moon night.

The photo above is the original view of Soyangjŏng take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n the early 20th century. Below is a recent aerial view of Soyangjǒng. Let's mark the location of the Soyangjǒng. It's hard to see the Soyangjǒng from a distance, but you can see that its location has changed a lot. In the past, it was on a hill right next to the Soyang River, But now you can see that it has moved up to the base of Mt. Pongŭi.

Soyangjǒng was burned down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and disappeared. It was rebuilt in 1966, and as you can see in the photo, a road was built on the original site, Forcing the location was moved to the high side of Mt. Pongŭi. As the location was moved to the mountain side,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to see the stunning view of the Soyang River if it was built as a single-story building. For this reason, it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as a two-story chǒngja.

Soyangjǒng wa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y No. 1 of Gangwon Province in 1984. Soyangjǒng was the first chǒngja to be built during the Three Kingdoms period.

2차시 조선시대 소양정의 명승 가치

The current Soyangjǒng was rebuilt in 1966 after being burned down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It is now a two-story 누각, whereas before it burned, it was a single-story nugak. It is also now located at the foot of Mt. Pongŭi, far away from the Soyang River, It was originally located right next to the Soyang River. Today, Soyangjǒng has lost much of its original appearance, Because of its long history and status as a scenic spot, it was designated as Cultural Property No. 1 of Gangwon Province in 1984. Let's take a look at the value of Soyangjǒng as a scenic spot during the Chosŏn Dynasty.

In the spring of 1635, Kim Sang-hŏn, a literary figure in the middle Chosŏn period, visited Mt. Chŏngpyŏng among others, And wrote a travelogue entitled Chŏngp'yŏngryokafter touring Ch'unch'ŏn. In Chŏngpyŏngrok, he wrote "I will discuss the places in Korea where the scenery and nujŏng is the best by region." He then went on to discus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ach of the famous nujŏng in Chosŏn at the time. The nujŏng he listed include Soyangjǒng in Ch'unch'ŏn, Yŏngwangjǒng in Pyongyang, and Paeksangru in Anju, Kangsŏnru in Sŏngch'ŏn, Nakminjǒng in Hamhŭng, and Ch'ŏngsimru in Yŏju.

First up is Yŏngwangjǒng by the Taedong River in Pyongyang. Like Soyangjǒng, Yŏngwangjǒng is located right on the river, so you can enjoy an unobstructed view of the Taedong River. However, it's close to a bustling town, It lacked a sense of seclusion.

On the left side of the photo, you can see a group of people washing clothes by the river. This suggests that there was a village where people gathered near Yŏngwangjǒng. It seems that it was not much different during the Chosŏn Dynasty when Kim Sang-hŏn lived. Pyongyang was a large city during Chosŏn, and with a village nearby, the area around Yŏngwangjǒng would have been noisy. Therefore, Kim Sang-hŏn believes that Yŏngwangjǒng is a good nugak but, Its proximity to the town made it feel less secluded.

Next up is Paeksangru in Anju. Sanghŏn said that Paeksangru is a large,

colorful building that seems to sit on top of the world. This is a photo of Paeksangru taken in the early 20th century. Paeksangru is a two-story nuga standing majestically on a hill.

This is a painting of Paeksangru by Cho Ik-p'il from Chosŏn. Paeksangru is the towering structure in the center. There is a castle around it, and this is Anju Eupsŏng. Anju Castle is the place where the Koguryŏ general Ŭlji Mundŏk fought the Great Battle of Salsu. It was a place where foreign invasions occurred because it was close to the border. During the Koryŏ Dynasty, Paeksangru served as a command center for the general to lead the battle when foreign enemies invaded. Kim Sang-hŏn said that Paeksangru's disadvantage was that it made people think of the outside world. The "periphery" is the border. So, Paeksangru is a place where battles are fought to prevent foreign invasion. It was not possible to enjoy the natural scenery and relax and enjoy the nature.

Last but not least is Ch'ŏngsimru in Yŏju, Gyeonggi Province. Chŏngsimru is a nuga located north of Yŏju's guesthouse, along the Namhan River, which flows through Yŏju. A guesthouse is a place where foreign envoys and officials were entertained and housed. Chŏngsimru is now a ruin, with no buildings left. What you see here is a partial view of Haedongjido from the mid-18th century. In the center, you can see Chŏngsimru. People staying at the guesthouse would have climbed up to Chŏngsimru to relieve their physical and mental fatigue. Kim Sang-hŏn says that Chŏngsimru is in the middle of the village, but it is not crowded. Surrounded by mountains, but not stuffy. However, Chŏngsimru lacked the ability to enjoy the natural beauty. As such, Kim Sang-hŏn criticized Yŏngwangjŏng in Pyŏngyang, Paeksangru in Anju, and Chŏngsimru in Yŏju. Pointing out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famous nugas.

He concluded with the following words about his visit to Soyangjŏng. "In front of Soyangjŏng, there was a long river and a wide field in front of me. Close by was a rocky valley. In the distance, it was surrounded by many mountain peaks, and it was refreshing, peaceful, and serene. For Shinyu and Mongsang, is perhaps the best of all."

This is a picture of the view from Soyangjǒng. According to Kim, Soyangjǒng is the best nugak in terms of Shinyu" and "Mongsang". Shinyu is when the body stays still and the mind goes to a distant place to play. Mongsang is thinking about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accomplish in reality. Kim Sang-hǒn climbed the Soyangjǒng and let his mind roam freely, And experienced the joy of imagining things that are difficult to accomplish in reality.

If Kim Sang-hǒn in the middle Chosǒn period compared Soyangjǒng to many famous nugaks in Chosǒn, Sǒng Hae-ng compared Kyǒngp'odae in Kangnǔng to Soyangjǒng in Ch'unch'ǒn. Sǒng Hae-ǔng wrote a text called 'Soyangjǒngi', in which he states in the opening paragraphs that

“The reason why Ch'unch'ǒn is famous in the country is because of the Soyang River. There is a nugak by the Soyang River called 'Soyangjǒng', which has a long history.”

The reason Ch'unch'ǒn's is famous is because of the Soyang River, If you go up to Soyangjǒng, you can get a good view of the Soyang River. Sǒng went on to compare Kyǒngp'odae in Kangnǔng to Soyangjǒng in Ch'unch'ǒn.

“If you go east over the big pass, there's Kyǒngp'odae in Kangnǔng, It's as good as Soyangjǒng to enjoy the spectacular view. In Ch'unch'ǒn and Kangnǔng, each had a Taebu (大府) to rule over the town. Both towns have a large nugak with a view of Sǔngyǒng.”

The big pass refers to Taegwallyǒng. Based on Taegwallyǒng, Gangwon Province is divided into Yǒngdong in the east and Yǒngsǒin the west. If Yǒngdong is home to Kyǒngp'odae in Kangnǔng, Yǒngsǒis home to Soyangjǒng in Ch'unch'ǒn. Kangnǔng is the largest town in the Yǒngdong region. Ch'unch'ǒn is the largest town in Yǒngsǒ. Sǒng ranks Ch'unch'ǒn's Soyangjǒng alongside Kangnǔng's Kyǒngp'odae as the most important ujǒng in Gangwon Province.

However, given the distance betwee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t would be difficult to travel to Kyǒngp'odae in Kangnǔng. "Kyǒngp'odae is located in a rough place over a large pass. As one must travel over a rough mountain road, officials or those who enjoy touring, It cannot be said a place easily accessible.' To reach Kyǒngp'odae, one must travel a long distance and cross

the rugged Taegwallyŏng. Kyŏngp'odae was a burdensome place for those officials keen for a short excursion.

Ch'unch'ŏn, on the other hand, is only about 100 kilometers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In fact, it took Kim only about a week to travel from his home in Gyeonggi Province to Mt. Ch'ŏngp'yŏng in Ch'unch'ŏn and back. From his home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best viewpoint to enjoy Ch'unch'ŏn's stunning mountains is Soyangjŏng. Sŏng said, "Ch'unch'ŏn is only about a hundred kilometers from Gyeonggi Province, and the land is fertile. The mountains and rivers are even more beautiful, and you can see them all at once if you climb to Soyangjŏng."

One of the postcards of Soyangjŏng taken in the early 20th century. This is a view of Soyangjŏng and the Soyang River from Mt. Pongŭi. At that time, people who came to Ch'unch'ŏn first asked for the location of Soyangjŏng when they entered Ch'unch'ŏn. Soyangjŏng was the best place to enjoy the scenery of Ch'unch'ŏn.

This article is an excerpt from Soyangjŏng's history by Yi Hak-gyu, published in 1940 and available at Kangwondoji. After the road to Ch'unch'ŏn was opened, Yi traveled from Seoul and Gyeonggi Province, Many people came to see Ch'unch'ŏn.

It is hoped that today, Ch'unch'ŏn's Sooyangjŏng will become more and more known not only to Koreans but also to people around the world.

3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매월당 김시습

Soyangjǒng is associated with Kim Si-sŭp, an outstanding literary figure in early Chosŏn. He was praised by King Sejong the Great for his poetry at the age of five. He was a natural talent. But in 1455, at the age of 21, while studying at Chungŏng Temple in Mt. Samgak, He heard the news that Suyangdaegun had driven out his nephew King Tanjong and usurped the throne. After wailing for three days, Kim Si-sŭp burned all his books, shaved his head, and became a Buddhist monk. From then on, he turned his back on the world and traveled around the country living in Mountain hermitages.

He became a monk and wandered the country, living in hermitages. In 1481, at the age of 47, he regrew his hair and returned to the world to take a wife. But the following year, Yun, the queen of King Sŏngjong, was killed. Kim became disillusioned with the world and set out on another wanderlust. His first stop was Gangwon Province. He stayed at Ch'ŏngp'yŏng Temple in Ch'unch'ŏn and climbed Soyangjǒng. The poems he wrote during this time are included in his collection Maewŏltang Sijip under the heading of 'Kwandong Ilok'.

'Kwandong Ilok' contains poems about the Soyang River and Soyangjǒng. For most of his life, Kim was an outsider, unable to get on with the world. What you see here is a portrait of Kim Si-sŭp, but the artist and the time period are unknown. It is believed that the portrait was originally hung in Oseahm, Mt. Sŏrak in Gangwon Province.

Sŏ Yu-yŏng, a literary figure from late Chosŏn, saw the portrait at Mt. Sŏrak Oseahm and wrote a poem about it. Oseahm was one of the places where Kim Si-sŭp stayed when he was in hiding. In his poem, Sŏ wrote, "A face of excellence with furrowed brows." His life of wandering, uncompromised by the injustices of the world, is well represented in this portrait.

Kim's life is also reflected in Ho, which he gave himself. In the olden days, in addition to a name, people had other titles, such as Cha (字) and Ho (號). A name is a title given to a person when they are born into the world. Cha is

a title given to a person when they are 15 to 20 years old, as a sign of adulthood after a ceremony. While names and Chas are given by others, Ho is often self-given. In particular, a person's self-name is called 'Chaho'. He put his identity and life orientation into it.

The name "Si-sŭp" comes from the first chapter of The Analects, "How pleasant it is to learn and practice from time to time". Cha is related to the meaning of the given name, and 'Yŏlkyŏng' is taken from the same passage from The Analects. In Kim Si-sŭp's Cha, "Yŏl" means "joyful," and "Kyŏng" is a honorific title given to a man. Kim Si-sŭp had several Chas for himself, including Chŏnghanja, Maewŏldang, Tongbong, and Chŭeseŏng. Chŏnghanja means a simple life without office and dignified poverty, Chŭeseong means a humpbacked beak, useless to the world. Kim Si-sŭp chose these names because he hid himself away from the world.

Cha or Ho was a common title for any major literary figures of Chosŏn. However, Kim Si-sŭp was traumatized by the events of King Sejo's overthrow of his nephew Tanjong and usurpation of the throne. He shaved his head and became a monk. Because he refused to live as a scholar, he was given the Buddhist name 'Sŏljam'. We don't know much about the meaning of "Sŏljam," which is a monk's title.

Almost 300 years after his death, King Chŏngjo awarded him the high office of 'Ijop'ansŏ', And bestowed upon him the title of 'Chŏgan'. Siho was given to a person who had served in a high government position or had accomplished something remarkable, To honor a person who has served in a high official capacity. King Chŏngjo recognized Kim Si-sŭp's ability to stay away from injustice and live honestly. He bestowed the title of "Chŏnggan" on him.

In his later years, he reflected on his life and wrote a long poem called 'My Life'. "I was born and became a man, but why did I not fulfill my human duties?" He began the poem by blaming himself. But Kim Si-sŭp was a man who struggled to uphold human decency more than anyone else in a turbulent political situation. And he dreamed of a world in which the politics of the sage king, and human beings lived by keeping morals.

After his death, Kim Si-sŭp wrote on his tombstone, "An old man who died

dreaming. He wanted future generations to recognize him, even if it was a thousand years later.

In 1582, Yi I was commissioned by King Sŏnjo to write a biography of Kim. Yi summarized Kim's life as 'Simyujŏkbul', or Confucianism at heart and Buddhism in action. Though he shaved his head and became a monk, he was Confucianism at heart and Buddhism in action.

When we look at his life and thought, he straddled Confucianism and Buddhism. In his writings, he discussed the ways of the king and the politics of the people. He wrote 'In'gunŭ' and 'Aeminŭi'. Furthermore, he criticized the mysticism of Buddhism and Taoism in texts such as 'Shin'gwisŏl' and 'Taegŭksŏl'. On the other hand, Kim Si-sŭp also wrote Buddhist works such as Myŏbyŏnhwagyŏngbyŏlch'an and Hwaŏnggyŏngsŏkche.

Beyond Confucianism and Buddhism, Kim was concerned with the fundamentals of human life. Confucius traveled the length and breadth of China preaching the Confucian Way, only to die and be buried in a tomb. The Buddha taught countless disciples and his speeches are recorded in the Buddhist scriptures, but he died and was reduced to a handful of ashes. Kim saw the lives of Confucius, the Confucian saint, and Buddha, the Buddhist saint, as all futile. It's a very pessimistic attitude. But Confucianism or Buddhism, Confucius or Buddha. The world they sought was a just world where human decency was practiced. Underlying the poem is a critique of the lack of justice in the world at the time, says Kim.

Kim Si-sŭp was troubled by the unjust world and skeptical about human life, And came out to Ch'unch'ŏn, Gangwon Province.

This is a poem titled 'Nagunae' (The Wanderer) written by Kim Si-sŭp when he came to Ch'unch'ŏn and stayed at Ch'ŏngp'yŏngsa. A Wanderer is a person who wanders from place to place without a fixed destination.

Let's read Kim's poem, 'The Wanderer'.

"I have come to Ch'ŏngp'yŏngsa as a wanderer / I play as I please in the spring Mountains / Even when the birds cry, the pagoda is silent. / Even when the flowers fade, only a little poem

flows. / I recognize the delicious herbs of the season / The
fragrant mushrooms are soft after the rain. / As I recite my
poems, I enter into the agitation. / The pain of a hundred years
of life disappears.”

Ch'öngp'yöngsa is located on Mt. Ch'öngp'yöng in Ch'unch'ön and was founded in early Koryö. Mt. Ch'öngp'yöng and Ch'öngp'yöngsa became famous when Koryö nobleman Yi Cha-hyön abandoned the office and took refuge here. Kim Si-süp enjoyed the tranquility of a spring day at Ch'öngp'yöngsa and wrote poetry, just as Yi did. In particular, he shook off the cares of life by entering Söndong. 'Söndong means "the valley of the xian," which is the name Yi Cha-hyön gave it. By staying in Mt. Ch'öngp'yöng, Kim hoped to forget the troubles of the world, like Yi.

During his time in Ch'unch'ön, he climbed Soyangjöng and wrote several poems. One of his poems is entitled 'Ascending Soyangjöng [登昭陽亭]', in a seven-pentameter poem. And three consecutive five-pentameter poems with the same title. What you see here are five-pentameter poems. Let's read the first of the three pentameter poems.

“Over there where the birds fly, the sky is full. / The loneliness
never ceases beside the worries. / The mountain bends mostly
from the north / And the river flows steadily toward the west. /
The geese settle down on the hazy sandbanks. / At some point
they cast off the nets of the world / And come back here to
play.”

Behind Soyangjöng is Mt. Pongüi, and in front is the Soyang River. Across the river are the fields of Wudu, and to the north of them are the dense peaks. Sitting on the Soyangjöng, Kim Si-süp's gaze is drawn to the distant sky. To the boats docked on the banks of the Soyang River, moving from far to near. On a normal day, he would climb up on the Soyangjöng to admire the scenery. He would have enjoyed the scenery, writing poetry and drinking with his acquaintances. However, as a wandering vagabond, he was deeply troubled by the state of the world and unable to entertain himself. So, in the seventh and eighth wards, Kim sheds all the troubles in his mind, He longs for the day when he can climb back up to Soyangjöng and enjoy the view.

Hö Kyun, a literary figure from the mid-Chosŏn period, considered Kim's poem about Soyangjŏng to be his greatest masterpiece. Hö evaluated Kim Si-sŭp's Soyangjŏng poem as follows.

“Shaking off all worldly temperament, it is harmonious and contained. Those who compose or polish poetry in a casual manner should definitely give way to him.”

He said that Kim's poetry was outstanding because “Without worldly temperament, it is tranquil and plain,” he wrote. Poems written in the nujŏng usually enjoy worldly culture. Conversely, they often exaggerate their secular aspects. However, in Kim's poems, there is neither worldly frivolity nor exaggerated worldliness. He simply sang about the excellence of life in a calm and unassuming manner. This is exactly what Hö Kyun appreciated.

Kim Ch'ang-hŭp, an outstanding poet of late Chosŏn, made a similar assessment of Kim Si-sŭp's Soyangjŏng poem.

Kim Ch'ang-hŭp was also irritated by the turbulent political situation and retreated to langwon Province for a long time. Naturally, he also visited Soyangjŏng in Ch'unch'ŏn. Kim Ch'ang-hŭp went up to Soyangjŏng, recalled the traces of Kim Si-sŭp, and appreciated the poems he wrote. He commented on Kim's poem as follows.

“This poem is profound in its rhythm and profound in its description of the scenery, It deserves to be placed at the top of the list of poems that recite the Soyangjŏng.”

Kim Ch'ang-hŭp appreciated the depth of Kim's emotion, And the realistic depiction of the surrounding scenery as seen from the Soyang River.

Today, Soyangjŏng has a plaque with a poem by Kim Si-sŭp. The original Soyangjŏng was burned down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and rebuilt in 1966. The plaque with Kim Si-sŭp's poem on Soyangjŏng was also recently written and hung. In this way, Soyangjŏng has been associated with Kim Si-sŭp from the Chosŏn Dynasty to the present. And his poems have been passed down through the ages.

4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김상헌 가문

In order for a *nujöng* to be named a scenic spot, several requirements must be met. First and foremost, the natural scenery around the *nujöng* must be beautiful. It also needs to be architecturally distinctive. However, this is not enough. A special connection to a famous person, or a poem or article written by an accomplished writer, Or a painter captures it vividly on canvas. A *nujöng* takes on a special meaning and becomes even more valuable as a scenic spot. *Soyangjöng* in *Ch'unch'ön* has a special connection, which passed from Kim Sang-h'ön to Kim Ch'ang-hy'öp and Kim Ch'ang-hüp, With the Andong Kim clan in late Chosön.

Let's take a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m Sang-h'ön family and *Soyangjöng* in *Ch'unch'ön*, and the poems about *Soyangjöng* created by the Kim Sang-h'ön family. Kim Sang-hön was a good official during the reign of King Injo. In the spring of 1635, the year before the invasion, Kim Sang-hön traveled to *Ch'unch'ön*, including Mt. *Ch'öngpyöng*. It was in 1635 that Kim Sang-hön went on a pleasure trip to Mount *Ch'öngpyöng* in *Ch'unch'ön*. It was at this time that he was experiencing conflicts with the bureaucrats in *Ch'unch'ön* and grew disillusioned with the political reality. He traveled to *Ch'unch'ön* and wrote a travelogue called *Ch'öngp'yöngrok*. *Ch'öngp'yöngrok* recorded his travels and what he saw and heard from March 8 to 14, 1635. He also wrote down his poetry while visiting places like *Soyangjöng*.

On March 11, 1635, Kim Sang-hön wrote the following poem from *Soyangjöng*.

“In March, Going up to the *Chöngja* by the *Soyang* River. / The scenery in front of the *Chöngja* is really good for playing / The land is vast and high in the sky, resembling *Tüngwanggak*. / The water of the river is clear, the sand is white, and it resembles the color of *Jizhou*. / The apricot blossoms are already fading and so are the chrysanthemums. / The spring grasses are withering because the royal family hasn't come. / Drunkenly leaning against

a pillar, whistling long. / The sun setting on western mountain peak sends light to Mt. Wudu.”

Kim Sang-hön visited Ch'unch'ön in the late spring and early summer of the third lunar month. The waters of the Soyang River are swollen and clear, and the Wudu fields across the Soyang River are vast. The Mountain Wudu in the distance was turning green and it was a good time to visit. Therefore, Kim Sang-hön compared Soyangjöng to Tüngwanggak and Ch'unch'ön to Jizhou. Tüngwanggak was built during the Tang Dynasty and is considered one of the four great nugaks of China. Jizhou is a place in Sichuan Province, China. The Tang Dynasty's great poet Du Fu loved the mountain streams of Jizhou. Kim Sang-hön believes that Ch'unch'ön and Soyangjöng are comparable to Jizhou and Tüngwanggak in China. Confident that it was a beautiful town and chöngja.

As he climbed up to Soyangjöng and enjoyed the scenery, he had a lonely thought. The apricot blossoms had already dropped, and the chrysanthemums had withered. It wasn't just that all the pretty flowers had wilted. In six verse, it says that the spring grasses are wilting because the royals have not come. This phrase describes the grievance of a wanderer away from home. Kim Sang-hön didn't come to Ch'unch'ön for pleasure. He was at odds with the bureaucracy and deeply troubled about his role. He resigned and refused to take a government post, despite the king's insistence. Because of this, Kim Sang-hön was unable to enjoy the springtime scenery at Soyangjöng. He would get drunk on Soyangjöng, watch the sun set, and whistle for a long time to get rid of his troubles.

Kim Chang-hyöp, Kim Sang-hön's great-grandson, had also climbed Soyangjöng to forget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at the time. Kim was a bureaucrat and scholar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The reign of King Sukjong was a time in Chosön's history when antagonism and confrontation between factions or pungdang was at its most extreme. A pungdang is a group of political associates. During the Sukjong period, many people were killed in repeated political reprisals due to quarrels among the pungdang. Kim Chang-hyöp's family, representing the Söin and Noron, was deeply involved in central politics. In 1689, Kim Chang-hyöp was 39 years old and serving as a

magistrate of Chǒngp'ung. At this time, his father, Kim Su-hang, was exiled to an island called Jindo. Kim Chang-hyöp then resigned from the court and went into hiding in Yǒngp'yǒng, Gyönggi Province, what is now today's P'ochön, Gyeonggi Province.

Then, in 1696, at the age of 46, Kim Chang-hyöp traveled to Wonju, Gangwon Province, to attend the funeral of an acquaintance. And visited Ch'unch'ön on his way back. At this time, he climbed Soyangjöng and wrote the following poem.

“The other day my great-grandfather climbed this nujöng. After sixty-two years, I came for a pleasure trip again / I've been hearing about the scenery for a long time / Now that I'm here, the scenery surpasses other villages. / The distant mountains are spread out like a picture. / A hundred clear rivers wash away the sickness of the traveler. / After a drink, I mounted my horse and rode away. / At the western corner of the parapet, I turn and look again.”

The title reads, "On my great-grandfather's poem I humbly rhyme". Great-grandfather refers to Kim Sang-hön, The word "Ch'aun" refers to the rhyme scheme of his great-grandfather's poem. Unja is a type of rhyme. In a poem, rhymes are usually placed on the last letter of an even number of lines to create a musical effect. In a hexameter poem, where the first line has seven characters, the rhyme is also placed on the first line. Kim Sang-hön climbed Soyangjöng in 1635 and Kim Ch'ang-hyöp found it in 1696. The first and second lines are a reference to this.

Kim Ch'ang-hyöp had heard of Soyangjöng's reputation, And marveled that the scenery was so good that view overwhelms other villages. The 7th and 8th lines depict a wanderer having a drink to soothe his woes, And too reluctant to leave.

Kim Chang-hyöp also wrote a travelogue called "Tongjönggi" at this time. In it, Kim climbed Soyangjöng for two consecutive days on August 19 and 20 of the lunar calendar. For Kim, Soyangjöng was a very meaningful place. It was also because Soyangjöng was named as a scenic spot, But also because his

great-grandfather, Kim Sang-hön, stopped by and wrote a poem. There are also similarities between the political situations of Kim Sang-hön and Kim Ch'ang-hyöp when they visited Soyangjöng. Kim Ch'ang-hyöp follows in his great-grandfather's footsteps and forgets the troubles of the world, And surely wished to find his way in life.

Kim Ch'ang-hüp, Kim Sang-hön's great-grandson and Kim Chang-hyöp's younger brother, also stopped by Soyangjöng and left a poem. Like Kim Ch'ang-hyöp, Ch'ang-hüp was deeply dismayed by the intense factional struggles, And went into hiding in Inje and Hwach'ön in Gangwon Province. He also spent time in Ch'unch'ön and Kangnüng. Like Kim Chang-hyöp, Ch'ang-hüp, wrote a poem based on a rhyme scheme by his great-grandfather, Kim Sang-hön.

“There is a tall nujöng by the Soyang River / Our ancestors came
and said it was a good place to play / Being a land of Kūmdae,
nowhere comparable in Hannam / A scene so stunning it
overwhelms P'aesö / The pillars reflected in the river water
bounce and the fish are happy / The geese passing by the faint
sandbar worrying me / Looking to the north, I see a vague
afterglow / The blue mist rises above Mt. Kyöng'un”

"Our ancestor" in line 2 refers to his great-grandfather, Kim Sang-hön. Kim acknowledged that the Soyangjöng in Ch'unch'ön was indeed a place to be, just as his ancestor had said. Kūmdae in the third line means collar and waistband, Ch'unch'ön is a stronghold where the rugged mountains are like a lapel and the river is like a waistband. This means that there is no such area south of the Han River. The Soyang River, also known as the Puk'an River, flows to Seoul and forms the Han River. The P'aesö in the 4th line refers to Pyeongan Province. Pyeongan Province has many famous nujöng, such as Yön'gwangjöng in Pyöngyang and Paeksangru in Anju. This is to say that Soyangjöng in Ch'unch'ön is such a wonderful nujöng that it overwhelms Yön'gwangjöng and Paeksangru. With a wistful heart, Kim Ch'ang-hüp looked north to Mt. Kyöng'un. Mt. Kyöng'un is another name for Mt. Ch'öngpyöng, where the Koryö's hermit Yi Cha-hyön had taken refuge. When Kim Ch'ang-hüp looked north to Mount Ch'öngpyöng, he was trying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the hermit Yi.

Like his great-grandfather and older brother, Ch'ang-hŭp didn't just climb aboard a small boat and enjoy the views. For as the fish in the river happily frolicked, he was a wandering wayfarer.

Kim's Soyangjŏng poem is not limited to his family's descendants, Kim Chang-hyŏp's disciples, Ŏ Yu-bong and Yi Hae-gon are also discernible this way. Ŏ is said to have admired Kim Sang-hŏn's poem when he saw it hanging in Soyangjŏng. This suggests that Kim Sang-hŏn's poems were hanging in Soyangjŏng at the time. Kim Ch'ang-hyŏp's literary friend, Yi Ha-gon, wrote a poem about Kim Chang-gyŏp's Soyang River. Since Kim Chang-hyŏp rhymed his great-grandfather Kim Sang-hŏn, Lee Hae-gon was also a student of Kim Sang-hŏn's poetry.

Yi's Soyangjŏng poem was written in 1714 when he was 38 years old. In the third month of the lunar calendar of that year, Yi traveled around the Kwandong region and visited Mt. Kŭmgang, leaving behind a travelogue called Tong'yurok. According to Tong'yurok, Yi climbed to Soyangjŏng on March 24 of the first lunar month, "The rivers and mountains are clean and beautiful, and the misty trees far away. It is truly a picturesque landscape", he writes in admiration.

Today, a plaque with Kim's poem about Soyangjŏng hangs on the plaque. The photo you see here is a view of the Soyang River from Soyangjŏng, and it hangs in Soyangjŏng. The original Soyangjŏng was burned down during the Korean War in 1950 and rebuilt in 1966.

Chŏng Yak-yong, a great scholar in late Chosŏn, traveled to Ch'unch'ŏn twice in 1820 and 1823. In 1823, he left a travelogue called Sanhaeng Ilgi. In it, he wrote poems by Kim Sang-hŏn and brothers Kim Ch'ang-hyŏp and Kim Ch'ang-hŭp and hung them in Soyangjŏng. The current plaque containing Kim Ch'ang-hyŏp followed this record. However, the poems of Kim Sang-hŏn and Kim Ch'ang-hyŏp are not hanging there. Probably because Kim was considered one of the greatest poets in late Chosŏn it seems.

Soyangjŏng was a special place for the Kim Sang-h'ŏn family. It didn't stop there, but was extended to Kim Ch'ang-hyŏp's disciples as well, making it a

meaningful place.

5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다산 정약용

Chŏng Yak-yong was a scholar from late Chosŏn who had a strong connection to Ch'unch'ŏn, where Soyangjŏng is located. He visited Ch'unch'ŏn twice, in 1820 and 1823. On both visits, he climbed Soyangjŏng to admire the view and write poetry. Let's take a look at Chŏng's two trips to Ch'unch'ŏn and the poems he wrote on Soyangjŏng.

First, let me give you a brief introduction to Chŏng Yak-yong. He was born in Nŭngnae-ri, Joan-myŏn, Namyangju-si, Gyeonggi Province. He was favored by King Chŏngjo from an early age, and was seen as a key man to succeed Ch'ae Che-gong and Yi Ka-hwan in the Namin faction. However, his political opponents constantly attacked him for his association with Catholicism. Chosŏn was a Confucian country, so it was taboo for officials to be associated with Catholicism. During the 1800s, when his opponents attacked for his alleged Catholic connections, Chŏng resigned his position and returned to his hometown. Then, the following year, in 1801, when King Chŏngjo ascended to power, there was a massive crackdown on Catholics. Because one of his brothers was a Catholic, Chŏng was implicated and sentenced to exile.

When Chŏng reached the age of 60, he recorded his life by naming his own epitaph. At this time, he cultivated himself with the Confucian canons of The Four Books and The Six Classics, and created guidelines for ruling the country with one P'yo and two Books. The first book refers to Kyŏngseyup'yo, and the second book refers to Mongminshimsŏ and Hŭmhŭmshinsŏ. These writings sharply pointed out the problems of Chosŏn at the time and contained reforms that could reform the state.

During his time in his hometown, Chŏng visited Ch'unch'ŏn twice. The first was in 1820, when his elder brother Chŏng Yak-hyŏn brought his second son, Hak-sun (學淳), to Ch'unch'ŏn to greet his daughter-in-law, Chŏng followed as well. During this time, Chŏng collected the poems he wrote while traveling to Ch'unch'ŏn and compiled them into a collection entitled Ch'ŏn'ukihanggwŏn.

Below are some of the poems in this collection.

“Straight north through Usu, then northeast again / Amidst the peaks of the mountains, the clear river is ten league.”

"Ch'önwu" is a Chinese word that combines the character "pierce Ch'ön" and "cow Wu". The "wu" character refers to "Wusu," the old name of Ch'unch'ön. In other words, "Ch'önwu" means "to penetrate Ch'unch'ön. Chöng's hometown was on the Han River. Chöng traveled by boat through the mountains and meandering waterways to Ch'unch'ön. He saw it as like boring a hole through.

The following is a poem that Chöng Yak-yong wrote on the Soyangjöng when he first went to Ch'unch'ön in 1820.

“A fisherman enters Tongch'ön in search of Tohwawön. / He stood in front of Manjöng like a colorful nugak / There's no sign of the Kung clan and the Yu clan occupying it / The quarrel between Han and Mac is but a pity / The old fields of Wusu are full of spring grass / And the petals of the flowers that have fallen into the river from Inje. / What good does it do to wrap them in silk or wear them in sleeves / A lone anchor in the willows by the river at sunset.”

The arrival of the boats from the first and second line, He likened it to a fisherman entering Tongch'ön in search of Tohwawön. Tohwawön refers to an idealized utopia in Tohwawön'gi written by Tao Yuanming. During the Qin Dynasty in China, a fisherman living in Wuling followed the path of a river that was flowing down with foxglove flowers, And came upon a village of people who had escaped the harsh politics of Qin Shi Huang. This place is called Murügdowön. Tongch'ön means the place where the xian lives. It's a word used to describe an exalted place. For Chöng, traveling to Ch'unch'ön was a way to leave the tainted world and enter a world of simple people, And to enter the world of the xian, where the scenery is spectacular.

In the third and fourth lines, however, Chöng recalls the past. The poem is titled 'Soyangjöng Hoego'. It means "recalling history in Soyangjöng". The Gungs and Yus of the third line refer to the Nangrang governor Yu Mu and the Taebang governor Kung Chun. Nangrang and Taebang were four occupation centers established by the Han Dynasty on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They were located in close proximity to Ch'unch'ön. The Han and Mac in the fourth line refers to the country of Chinhan in the ancient Korean Peninsula and the Mac Kingdom, which was based in Ch'unch'ön. The Kungs and Yus captured Ch'unch'ön, faced Koguryö to the north, and attacked Chinhan to the south. Soon, Chöng was on the Soyangjöng, thinking about the ancient nations that had Ch'unch'ön as their base. However, all of these ancient nations had disappeared into history, Chöng could only see grass growing in the fields of Wusu. And the waters of the Soyang River have always flowed unchanged, regardless of the rise and fall of man.

When the 7th District saw the plaque on the Soyang River, they were moved to tears by the impermanence of human life. Once upon a time, during the Song Dynasty in China, a man named Wi Ya went to a temple with Ku Jun, and they each wrote a poem and left it behind. Later, when they went to the temple again, Ku's poem was wrapped in silk and stored away, And Wi's poem had been neglected and had gathered a lot of dust. It is said that the beautiful woman that Wi took with him used her sleeve to dust off the dust that had accumulated on his poem. Chöng may have written a great poem like Ku Jun, Or a poor poem like Wi, it doesn't matter. Because even if he wrote a good poem and hung it on the Soyangjöng, it would be insignificant in the long, long history of poetry. Chöng Yak-yong's poem depicts the stunning natural scenery of Ch'unch'ön. But it is also a retrospective of Ch'unch'ön's history.

What you see is part of the preface to Sanhaeng Ilgi. In 1823, Chöng traveled to Ch'unch'ön again. This time, his son Hak-yön was on his way to meet his daughter-in-law with his grandson Tae-lim. It was during this trip that Chöng wrote this travelogue Sanhaeng Ilgi. The word 'San' means 'Sansu', which refers to the Puk'an River that flows through Ch'unch'ön, Like his first trip to Ch'unch'ön, Chöng traveled by boat up the Puk'an River to Ch'unch'ön. He wanted to visit Mountain Hankye in Inje and Kok'un in Hwach'ön. Mountain Hankye refers to Mt. Sörak, and Kok'un is where Kim Su-jüng hid out during late Chosön. The upper reaches of the Puk'ant River also reach Mt. Hankye in Inje and Kok'un in Hwach'ön. Near Soyangjöng in Ch'unch'ön, the Soyang River from Inje and the Changyang River from Hwach'ön merge. Hence the title of

the travelogue Sanhaeng Ilgi.

Let's continue with the preface of Sanhaeng Ilgi. On his second trip to Ch'unch'ŏn, Chŏng made a lot of preparations in advance. First, he arranged for two boats, one for himself and one for his son Hak-yŏn. He made the boats like houses, decorating them with rooms, naming them, and writing on the pillars.

Chŏng named his boat 'Sansurokjae', which means 'house of green mountains and rivers'. On the pillars of his son Hak-yŏn's boat, he wrote 'House on the water' and 'Sleeping on fire and eating wind'. A boat is not just a means of transportation, it was also a place to sleep and eat, and a place to enjoy the views. This is also part of the preface.

On his second trip to Ch'unch'ŏn, Chŏng planned to take a painter with him to paint the scenery. On his first trip to Ch'unch'ŏn, he was disappointed that he could only describe the stunning scenery in poetry. Moreover, on the second trip, he planned to visit Kokunkugokin in Hwach'ŏn and Mt. Hankye in Inje. So Chŏng heard that a man named Pang Wu-do was good at painting scenery, and sent his son to fetch him. Fortunately, Pang agreed, but in the end he fell ill and couldn't come with them. Chŏng was very disappointed.

Chŏng's second trip to Ch'unch'ŏn was accompanied by many acquaintances. What you see here is Chŏng Yak-yong traveling by boat from his home in Namyangju up the Puk'an River, all the way to Ch'unch'ŏn on a map of today. They set out on April 15th and arrived in Ch'unch'ŏn two days later on the 17th.

What you see is an account of the journey in Sanhaeng Ilgi dated April 20 on a lunar calendar. Chŏng traveled on the Soyangjŏng with a group of people, including his friend Yi Jae-ŭi. On his second trip to Ch'unch'ŏn, Chŏng did not compose any Soyangjŏng poem. Instead, he clearly wrote out the Soyangjŏng poems of senior writers who had previously traveled to Soyangjŏng and hung them on the plaque. He also walked with his own poem, Soyangjŏng, which he wrote on his first trip to Ch'unch'ŏn. After descending from Soyangjŏng, Chŏng and his companions floated a boat on the Soyang River and enjoyed boating.

As mentioned above, the current Soyangjǒng has a plaque with the poem written by Chǒng Yak-yong. The photo at the top is a poem by Kim Si-sǔp and Kim Ch'ang-hǔp that currently hangs in Soyangjǒng, The bottom one is by Yi Chae-ho and Cho Jae-ho. Chǒng's *Sanhaeng Ilgi* record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restoration of the Soyangjǒng poetry plaques.

讲义

1차시 소양정의 어제와 오늘

楼阁是2层以上的中层结构，上有瓦片屋顶，比亭子规模更大。亭子八作屋顶柱子不多，而且很多是草屋屋顶的形态。从照片中可以看出，现在的昭阳亭是典型的楼阁形态的建筑。

那么，来看一下昭阳亭的历史。昭阳亭位于江原道春川市。春川市是江原道道厅所在地，是江原道最大的城市之一。

这是从昭阳亭所看到的昭阳江的风景。亭子的名字‘昭阳亭’取自横穿亭子前的‘昭阳江’这一江流的名字。‘昭阳亭’就是‘昭阳江边的亭子’的意思。以地名、山名、江名等命名楼亭是悠久的传统。

昭阳亭的创建和重建的历史在朝鲜后期学者李裕元所著的《林下笔记》中记载得比较详细。李裕元记录道：“亭在春川府东六里，昭阳江崕，谚传三韩时所翔。”

目前流传的三国时期相关文献中尚未确认昭阳亭的存在。只有高丽后期的文人元天锡在春川吟诵的诗中，留下了登上了昭阳江边的楼台，尽享风流的记录。

元天锡在《春洲》一诗中写道：“重到昭阳江上楼，满楼春色更风流。”元天锡所说的‘昭阳江上楼’似乎指的就是昭阳亭。由此可见，昭阳亭至少在高丽后期开始便以名胜闻名。

所谓‘昭阳亭’这一亭子的名称明确出现在生活于高丽末期到朝鲜初期的文人赵浚的诗句中。赵浚在《春日昭阳江行》一诗中写道：“伤心走马昭阳亭，昭阳水碧月正弦。”赵浚登上昭阳亭，看着半弦月照耀的昭阳江碧水来抚慰伤心之情。

朝鲜前期刊行的《新增东国舆地胜览》中，江原道春川的楼亭之中，昭阳亭排在第一位。《新增东国舆地胜览》是朝鲜前期由国家主导编纂的人文地理志。昭阳亭果然是代表春川的楼亭。

但在《新增东国舆地胜览》中，昭阳亭的名字是‘二乐楼’。《新增东国舆地胜览》刊行于1530年左右，由此可见昭阳亭当时被称为‘二乐楼’。即‘二乐楼’是昭阳亭的别称。前面讲过昭阳亭意为位于昭阳江的亭子，那么‘二乐楼’是什么意思呢？

‘二乐楼’中的‘楼’是‘楼阁’的意思。‘二乐’是由数字‘二’和表示喜爱的‘乐’组成的词语。‘二乐’意为‘以二者为乐’，即‘乐山乐水’。‘乐山乐水’是‘喜爱山也喜爱水’的意思。此处‘山’指的

是凤仪山，‘水’指的是昭阳江。即‘二乐楼’意为可以同时享受凤仪山与昭阳江美景之地。作为参考，‘乐山乐水’出自《论语》中孔子所说的“知者乐水，仁者乐山。”一句。

来看一下朝鲜后期重建昭阳亭的历史。据李裕元《林下笔记》的记载，朝鲜时代昭阳亭曾因昭阳江的泛滥而两次被摧毁。1605年昭阳江泛滥，昭阳亭被冲走。之后的1610年，春川府使李希聃重建了昭阳亭。1777年昭阳江再次爆发洪水，昭阳亭倒塌。3年后，春川府使李东馨重建了昭阳亭。因为昭阳亭位于昭阳江边，一旦昭阳江爆发洪水，就会被摧毁。1780年春川府使李东馨重建昭阳亭时，李东馨给朋友洪良浩写信，请求其记录昭阳亭重建的情况。当时李东馨写给洪良浩的书信被收录于洪良浩所写的记文中。李东馨在距离原址400步左右的地方重新建立了昭阳亭。没有记录李东馨为何没在原始地基上重建的原因。但很有可能是因为原来的地基被洪水严重冲毁，所以在附近寻找了新的地基。

这张照片是20世纪初拍摄的昭阳亭和昭阳江的照片。照片左下方用日语写着‘春川名所春川昭阳亭和昭阳桥’。左侧的大桥是1933年竣工的昭阳桥。现在叫做昭阳1桥。从照片的正中央有昭阳桥这一点来看，可以推测这张照片是1933年左右为纪念昭阳桥的开通而拍摄的。可以看到，与今天不同，昭阳亭是单层建筑，紧邻昭阳江边。从这张照片中可以充分理解昭阳亭在每次昭阳江泛滥时都被冲走的事实。

进入20世纪后，春川的昭阳亭也继续保持着其名胜古迹的名声。这本书是1927年出版的《江原道名胜古迹》。此书是日本以日语编纂的书，是为了向日本人介绍春川的昭阳亭、清平寺、金刚山一带、关东八景等江原道的名胜而编纂的。前面还收录了几张标注名胜位置的地图。可以说是江原道名胜的旅游指南手册。值得关注的是，装饰这本书封面的就是春川的昭阳亭。《江原道名胜古迹》中收录了作为江原道名胜之一的春川昭阳亭。以昭阳亭装饰书的封面，而且第一个介绍的江原道名胜就是春川的昭阳亭。

如图所示，简要介绍了昭阳亭，并收录了照片。从照片中可以看出昭阳亭是单层建筑，紧邻昭阳江。介绍文的第一句中写道，位于昭阳江南岸、凤仪山北麓，创建于三国时代。另外，原本的名字是昭阳亭，中间一度改为‘二乐楼’，现在又恢复了原来的名字，记录了这一变迁过程。

这是1912年出版的李海朝(1869-1927)的新小说《昭阳亭》的封面。新小说是朝鲜时代小说和近代小说之间的过渡期的叙事形式，主要创作于20世纪初。《昭阳亭》于1911年9月30日至12月17日在《每日新报》上连载了65次。1912年出版初版单行本之后，到1923年进行了7次再版，人气非常高。封面上画着一个女人在满月之夜试图从昭阳亭投身昭阳江的场面。封面图中的女人是小说的女主角郑彩兰。郑彩兰在未婚夫吴奉朝被冤枉而被关押在春川监狱后，跑到春川官厅上诉。但最终没能救出吴奉朝，于是月夜登上了昭阳亭，准备跳入昭阳江。这时，朴御史经过昭阳亭遇到了想要跳江的郑彩兰，最终洗脱了吴奉朝的罪名。在小说中，昭阳亭是

郑彩兰和朴御史相遇并解决事件的重要场所。

上图为20世纪初日帝强占期拍摄的昭阳亭远景。下图是最近拍摄的昭阳庭远景。来标注一下昭阳亭的位置。虽然在远处拍摄，看不清昭阳亭，但可以看出昭阳亭的位置发生了很大的变化。过去昭阳亭就位于昭阳江旁边的山坡上，现在可以看到昭阳亭的位置沿着凤仪山山麓高了不少。

昭阳亭在1950年韩国战争中被完全烧毁。1966年进行了重建，如照片所示，昭阳江边的原址上建设了道路，将昭阳亭的位置移到了凤仪山的高处。因为位置移动到山上，所以建成单层建筑的话，就会难以完全欣赏昭阳江的美景。据推测因此建成了2层楼阁形态。

昭阳亭于1984年被指定为江原道文化遗产第1号。昭阳亭作为始建于三国时代的亭子，其历史性得到了认可。如果大家到访韩国，一定要去春川的昭阳亭看看，享受一下凤仪山和昭阳江的美丽风景。

2차시 조선시대 소양정의 명승 가치

现在的昭阳亭是在1950年朝鲜战争时被火烧毁的基础上1966年重建的。现在是2层的楼阁形态，烧毁前是单层的亭子形态。另外，虽然现在位于远离昭阳江的风仪山脚下，但原址就位于昭阳江边。从昭阳亭的历史来看，相传最早建于三国时代。据记载，朝鲜时代因为昭阳江发生洪水，所以昭阳亭多次倒塌重建。虽然如今昭阳亭失去了很多原来的样子，但得益于悠久的历史 and 名胜古迹的地位，1984年被指定为江原道文化遗产第1号。

下面来了解一下朝鲜时代昭阳亭作为名胜古迹的价值。朝鲜中期的文人金尚宪于1635年春天游览了清平山等春川名胜，并撰写了名为《清平录》的纪行文。金尚宪在绿荫渐浓的春日登上昭阳亭，尽情欣赏昭阳江和昭阳江对面的群山平野。金尚宪在《清平录》中表示“尝论江湖楼观之擅名一方”。并且一一列举了当时朝鲜有名的楼亭，谈论了其优缺点。金尚宪游览过的朝鲜楼亭包括春川的昭阳亭、平壤的练光亭、安州的百祥楼、成川的降仙楼、咸兴的乐民亭、骊州的清心楼等。

首先是位于平壤大同江边的练光亭。像昭阳亭一样位于江边，视野开阔，可以尽享大同江的风景。但缺点是由于靠近人满为患的村庄，所以缺乏超然出尘的味道。

现在看到的是以20世纪平壤大同江边的练光亭照片制成的明信片。如照片所示，练光亭建在大同江边的岩石上。登上练光亭，以开阔的视野眺望广阔的大同江水，心情自然会变得舒畅。这也是20世纪初拍摄的练光亭照片。右上方用日语写着‘平壤名胜-大同江边练光亭和钟阁’。而照片左边可以看到在江边聚集着洗衣服的人们。还能看到练光亭前面的摆渡之人。似乎是捕鱼的渔夫。由此可见，在练光亭附近有一个人们聚居的村庄。金尚宪生活的朝鲜时代似乎也与此并无不同。平壤在朝鲜时代也是大城市，再加上村子离得很近，所以练光亭周围应该十分热闹。因此金尚宪认为，练光亭虽然是十分美丽亭子，但缺点是因为靠近村子，缺少脱离尘世的感觉。

下面是安州的百祥楼。金尚宪说“百祥楼宏阔壮丽，浩浩乎如坐空虚之上。”图为20世纪初拍摄的百祥楼照片。百祥楼以2层楼阁雄伟的面貌矗立在山坡上。与山坡下经过的人进行对比，可以看出建筑物的规模非常庞大。更何况，百祥楼位于可以一眼看到清川江的地方，周边风景也非常优美。

现在看到的是朝鲜时代赵翼笔绘制的百祥楼图。中间高耸的是百祥楼，周围有城郭，这是安州邑城。安州城是高句丽将领乙支文德取得萨水大捷之地，因其靠近国境，所以时有外敌入侵。百祥楼是高丽时期敌人入侵之时将帅指挥战斗的指挥所。金尚宪说，百祥楼的缺点是“有矣塞感慨之思”。‘矣塞’指的是国境。即因为百祥楼是抵御外敌入侵进行战斗的地方，所

以无法完全安心地欣赏自然景观，舒适地享受风流。

最后是京畿道骊州的清心楼。清心楼是位于骊州客舍的北侧，流经骊州的南汉江边的楼阁。客舍是接待外国使臣或因公前来的官员，为其提供食宿的宿所。清心楼建筑没有流传至今，只剩下了遗址。现在所看到的是18世纪中叶制成的《海东地图》的骊州牧部分。中间位于江边的就是清心楼。旅居客舍的人们经常登上清心楼，缓解身心疲劳。金尚宪认为“清心楼带官村而不厌其近，环众山而不觉其碍，旷然以畅”，但“天造地设，自然不及于以上诸名区。”

像这样，金尚宪一一点评了平壤的练光亭、安州的百祥楼、骊州的清心楼等著名楼亭的优点和缺点。并且登上昭阳亭发表了如下的感想。

“俯临长江，前眺平野。近依岩洞，远挹群山，清晏幽迥。而神游梦想，其在兹亭乎。”

这是从昭阳亭所见风景的照片。昭阳亭下面流淌着昭阳江。昭阳江对面的平野广阔。而且远山静静环绕。这就是金尚宪在朝鲜时代登上昭阳亭所见到的风景。

金尚宪说，从‘神游’和‘梦想’的层面来看，昭阳亭首屈一指。‘神游’是指形体不动，精神远游。‘梦想’是指思考现实中难以实现的事情。金尚宪登上昭阳亭，精神畅游，在想象中体验实现现实中难以实现之事的乐趣。

如果说朝鲜中期的金尚宪将多处朝鲜著名楼亭与昭阳亭进行了对比，那么朝鲜后期的成海应则将江陵的镜浦台与春川的昭阳亭进行了对比。成海应撰写了《昭阳亭记》一文，此文开头如下。

“春川之山水名于国中者，以有昭阳江，而江上有亭，亦称昭阳，盖古也。”

春川的山水之所以有名，是因为有昭阳江，登上昭阳亭就可以真正地欣赏昭阳江。接下来成海应将江陵的镜浦台和昭阳亭进行了对比。

“少踰而东则江陵之镜浦也，其游观之美，与斯亭可伯仲。又各设置大府以治之，皆有楼观邑聚之盛。”

‘岭’指的是大矣岭。江原道以大矣岭为基准，分为东部的岭东地区和西部的岭西地区。如果说岭东地区有江陵的镜浦台，那么岭西地区就有春川的昭阳亭。江陵是岭东地区最大的城市，春川是岭西地区最大的城市。

成海应认为江原道的楼亭之中春川的昭阳亭和江陵的镜浦台不相伯仲。但以京师和京畿地区为基准，从移动距离上看，去江陵的镜浦台不是一般的困难。所以成海应说道：“镜浦僻在岭外，越险阻涉崎岖而至，故非游宦与好奇者不能游。”如果要去镜浦台，距离很远，而且要越过险峻的大矣岭。在朝为官之人暂时游览山水的话，镜浦台是个十分有负担的地方。与此相反，春川距离首尔和京畿地区只有100里左右。

实际上，金尚宪从京畿道家里出发游览春川的清平山，回来只用了1周左右的时间。而且享受春川美丽山水的最好景点就是昭阳亭。所以成海应说道：“春川近在畿服百馀里，地又肥沃，而山川尤增美。登斯亭也，一举目而可尽之。”

这是20世纪初拍摄的昭阳亭照片明信片之一。是从凤仪山俯瞰的昭阳亭和昭阳江的风景。据说，来春川游览的人一进入春川，首先会问昭阳亭的位置，在欣赏春川风景时，昭阳亭是最好的名胜。

这篇文章是1940年出版的《江原道志》中收录的李鹤奎创作的《昭阳亭重修记》的一部分。李鹤奎说，自从首尔和京畿地区开通通往春川的道路以来，很多人前来观赏春川的山水。1922年，首尔以非铺装的形式开设了途经京畿道南杨州和加平，连接春川的往返二车道-京春道。此外，1939年开通了首尔至春川之间的铁路。如今，随着高速公路和高速铁路的发展，从首尔和京畿道地区来到春川的游客越来越多。

期待今天的春川昭阳亭能被更多的韩国人乃至世界各地游客所了解。

3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매월당 김시습

昭阳亭与朝鲜前期卓越的文人金时习渊源颇深。金时习5岁时作诗，受到了世宗大王的称赞，具有天才般的才能。但在1455年21岁，三角山中兴寺学习期间，听闻首阳大君赶走了侄子端宗，篡夺了王位的消息。金时习痛哭3天后，把所看的书全部烧毁，自己剃了头，成为了僧人。此后，金时习与世隔绝，辗转全国各地山寺，进行流浪生活。因为金时习绝对不能容忍臣首阳大君用武力发动政变，驱逐国王端宗，篡夺王位。

金时习成为僧人，辗转于全国山寺，在1481年47岁时重新蓄发，结婚还俗。但是第二年发生了曾是成宗王妃的尹氏被赐死的事件。金时习对俗世感到厌烦，再次踏上流浪之路。当时首先去的地方就是江原道。金时习在春川的清平寺逗留期间，经常登上昭阳亭。当时创作的诗作被收录在金时习的文集《梅月堂诗集》的《关东目录》中。

《关东目录》中还收录了吟咏昭阳江和昭阳亭的诗。金时习一生无法与世界和谐相处，一直过着局外人的生活。现在所看到的是金时习的肖像画，画家和绘制的时间不详。据推测，金时习的肖像画本来挂在江原道雪岳山的五岁庵中。

朝鲜后期的文人徐有英在雪岳山五岁庵看到这幅肖像画后留下了诗。五岁庵是金时习隐居时居住地之一。徐有英的诗中有“攒眉滞愁容”的诗句。金时习不与世间不当妥协，过着放浪生活的一生很好地通过肖像画表现了出来。

金时习的人生也通过自己所取的号很好地表现了出来。古人除了名之外，还有字、号等称呼。名是出生在上世被赋予的称呼。字是15~20岁时冠礼，即举行的成人礼后，被赋予代表成人之意的称呼。名和字是别人给取的称呼，与此相反，自己取号的情况很多。自己取的号被称为‘自号’，将自身的认同感和人生志向包含在自号中。

‘时习’这个名字取自《论语》第一章中的‘学而时习之，不亦说乎’。字取于与名相关的含义，‘悦卿’也出自《论语》的同一章节。金时习的字‘悦卿’中的‘悦’字是喜悦之义，‘卿’是对男子的尊称。金时习取了清寒子、梅月堂、东峰、赘世翁等多个自号。‘清寒子’意为不做官，过着清贫的生活，而‘赘世翁’意为有如世上无用的瘤子般的存在。因为金时习离世隐居，所以取了这种自号。

字或者号是朝鲜时代一般士大夫文人都有称呼。而金时习因世祖驱逐侄子端宗，篡夺王位的事件受到冲击，自己剃了头，成为了僧人。金时习拒绝以儒学者的身份生活，因此起了‘雪岑’的法号。法号是指僧人的称呼。‘雪岑’的含义不详。

在金时习去世近300年后，正祖赐予其‘吏曹判书’的高位及所谓‘清简’的谥号。谥号是

历任高官或留下卓越业绩去世后，国家为了颂扬其功德而授予的称号。正祖对金时习远离不义，正直生活这一点给予了高度评价，并赐予了‘清简’的谥号。

金时习晚年回顾自己的人生，创作一首名为《我生》的长诗。以“我生既为人，胡不尽人道”这种对自身的责问开始了这首诗。但金时习是在混乱的政治状况下，比任何人都遵循人世之道而孤军奋战的人。而且他梦想着圣君之政，梦想着遵循人世之道而生活的世界。

金时习希望自己死后，在石碑上写上‘梦老死’，期待即使千年之后，后代之人也能认可自己。正祖赐予金时习高官及谥号，可以说实现了金时习的愿望。

李珣于1582年奉宣祖之命撰写了金时习的传记。李珣将金时习的一生概括为‘心儒迹佛’，即内心是儒教，行迹是佛教。金时习虽然表面上剃头成为了僧人，但内心却维持着儒学之道。

纵观金时习的生平和思想，他穿梭于儒教和佛教之间。从他撰写的著作来看，他撰写了论述君王之道和为民之政的《仁君议》和《爱民议》等。尤其是《神鬼说》和《太极说》等文章批评了佛教和道教的神秘主义。但另一方面，金时习也留下了《莲经别赞》、《华严释题》等佛教著作。

金时习超越儒教和佛教，对人生的根本性苦恼进行了思考。孔子辗转中国各地，说教儒学之道，死后只是被葬在坟墓中。佛祖教授众多徒弟的演说被记录在佛经中，但死后只是成为一抔灰烬而已。金时习认为儒教的圣人孔子、佛教的圣人佛祖的人生都是虚无缥缈的。可以说这是非常厌世的态度。但无论是儒教还是佛教，孔子还是佛祖，他们所追求的世界都是实现人间之道的正义世界。

金时习在这首诗中渗透了对当时现实不义的批判。金时习因对不义世界的憎恶、对人类生活的怀疑而痛苦，来到了江原道春川。

当时金时习的诗中经常会出现‘与世不符’、‘与世相违’的表达，经常提及自己与世界的不和。

现在所看到的是金时习来到春川，在清平寺生活时所作为《有客》的诗作。‘有客’指的是居无定所到处流浪之人。

那么来读一下金时习的《有客》。

有客清平寺，
春山任意游。

鸟啼孤塔静，
花落小溪流。
佳菜知时秀，
香菌过雨柔。
行吟入仙洞，
消我百年愁。

清平寺位于春川的清平山， 创建于高丽前期。 清平山和清平寺因高丽前期贵族李资玄弃官隐居于此而出名。 金时习如同李资玄一样， 环顾清平寺各处， 享受春日的闲静， 吟诗。 特别是“行吟入仙洞， 消我百年愁”。 ‘仙洞’意为神仙生活的山谷， 是李资玄起的名字。 金时习在清平山停留的时候， 试图像李资玄一样忘记世俗的烦恼。

金时习在春川生活登上昭阳亭创作了多首诗歌。 有以〈登昭阳亭〉为题创作的七言律诗， 也有以同样的题目连续创作的三首五言律诗。 现在所看到的是三首五言律诗。 来读一下三首五言律诗中的第一首。

鸟外天将尽，
愁边恨不休。
山多从北转，
江自向西流。
雁下沙汀远，
舟回古岸幽。
何时抛世网，
乘兴此重游。

昭阳亭的后面是凤仪山， 前面是昭阳江。 江对面是牛首平野， 北边是层峦叠嶂。 登上昭阳亭的金时习的视线从遥远的天空移动到停泊在昭阳江边的船， 从远景移动到近景。 一般情况下， 文人们会登上昭阳亭欣赏风景， 和朋友们一同作诗饮酒， 尽享风流。 但金时习是漂泊不定的游子， 对世事的苦恼很深， 所以没有兴致。 因此， 金时习在第7、8句中希望抛开心中的所有烦恼， 重新登上昭阳亭欣赏山水， 享受风流。

朝鲜中期文人许筠在吟咏昭阳亭的诗中，将金时习所作之诗评选为最佳杰作。许筠作为小说《洪吉童传》的作者而闻名，同时作为朝鲜时代的诗评家也颇有名气。许筠对金时习的昭阳亭诗进行了如下评价。

“俱脱去尘白，和平澹雅。彼纤靡雕琢者，当让一头也。”

在金时习之前，金时习之后也有很多人登上昭阳亭作诗。但在许筠看来，‘纤靡雕琢’创作的昭阳亭诗，无法与金时习的诗相比。许筠认为金时习的昭阳亭诗之所以十分出众，是因为‘脱去尘白，和平澹雅’。登上楼亭所作的诗大多是享受世俗风流，或者过分夸大其脱俗的一面。但金时习时既没有展现世俗的风流，也没有展现夸张的脱俗形象，只是平和淡雅地歌咏了人生之美。许筠对这一点给予了很高的评价。

朝鲜后期优秀的诗人金昌翁也对金时习的昭阳亭诗做出了与许筠相似的评价。金昌翁是肃宗时代的人，当时在朝廷之中，朋党间的纷争非常严重。朋党是一种政治性同志集团。金昌翁也对混乱的政治状况感到厌烦，长期隐居在江原道，当然也去过春川的昭阳亭。金昌翁登上昭阳亭，回想起金时习的踪迹，欣赏了他所做的诗。然后对金时习的诗进行了如下评价。

“此诗赋兴深远，写景逼真。当置于吟昭阳亭诗首。”

金昌翁对金时习深刻地表达了自己的感情，真实地描写了在昭阳江看到的周边景观等给予了高度评价。金昌翁从不同于许筠的另一个层面上，认为在昭阳亭诗中，金时习的诗是最佳作品。

现在昭阳亭上挂着写着金时习诗作的悬板。古代的昭阳亭在1950年韩国战争时被火烧毁，1966年重新建成。金时习的昭阳亭诗悬板也是最近写了重新悬挂的。昭阳亭从朝鲜时代到现在，通过金时习这位杰出人物和他创作的诗作，延续着作为名胜的价值。

4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김상헌 가문

楼亭要想以名胜闻名，必须具备各种条件。最重要的是楼亭周围的自然景观要美丽。而且楼亭也要有建筑学特色。但光靠这些是不够的。与著名人物结下特殊缘分，或卓越的文人留下诗作、文章，或画家将其生动地画入画中。当增添了这些人文元素时，楼亭就会更加具有特殊意义，作为名胜古迹的价值也更高。春川的昭阳亭与朝鲜后期金尚宪至金昌协和金昌翁的安东金氏家族有着特别的缘分。

金尚宪游览春川后留下了纪行文，金尚宪的孙子金寿增曾隐居于隶属春川的华阴洞。曾孙金昌协和金昌翁也曾游览春川并留下诗文。下面来考察一下春川的昭阳亭与金尚宪家族的关系以及金尚宪家族创作的与昭阳亭有关的诗文。金尚宪是仁祖时期的优秀大臣。1636年冬，北方的清朝侵略朝鲜的丙子胡乱时期，金尚宪在南汉山城辅佐仁祖，是反对与清朝讲和的‘斥和派’代表。金尚宪在丙子胡乱发生的前一年1635年春天游览了包括清平山在内的春川名胜。金尚宪于1632年，以63岁的年纪成为了大司宪，但因攻击吏曹判书李贵，受到仁祖的严厉指责，而后辞去官职，住在故乡京畿道南扬州石室。第二年，金尚宪被任命为咸镜道观察使、大司宪等，但都辞职了。后来在1635年再次被任命为大司宪，但依然辞职了。金尚宪去春川的清平山游览之时正是与朝廷官员发生矛盾，对政治现实感到厌恶的时候。金尚宪游览春川，并写下了题为〈清平录〉的纪行文。〈清平录〉记录了1635年阴历3月8日至14日每日的旅程和所见所闻。同时，还写下了游览名胜时吟咏的诗。

金尚宪在阴历3月11日登上昭阳亭，写了下面这首诗。

三月昭阳江上楼，
楼前形胜最堪游。
地迴天高拟滕阁，
渚清沙白似夔州。
杏花已落桃花老，
王孙未归芳草愁。
酒酣倚柱发长啸，
西山落日射牛头。

金尚宪在阴历3月晚春初夏之际来到了春川。昭阳江水涨船高，清澈明亮，昭阳江对面的牛头平野一望无际。远处的牛头山正是绿意渐浓的好时节。因此金尚宪将昭阳亭与滕王阁、春川与夔州相媲美。滕王阁建于唐朝，是中国四大名楼之一。夔州是中国四川省的地名，唐朝大诗人杜甫非常喜欢夔州的山川。金尚宪自豪地认为春川和昭阳亭是与中国夔州和滕王阁相比也毫不逊色的美丽城邑和亭子。金尚宪登上昭阳亭欣赏风景的同时内心感到一丝凄凉。“杏花已落桃花老”，金尚宪之所以沉浸在忧愁之中，不只是因为美丽的花朵都枯萎了。第6句说道“王孙未归芳草愁”。这句话表达了离开故乡的游子的忧愁。

金尚宪并不是怀着愉快的心情来春川旅游的。当时的情况是，与朝廷的官僚们产生了矛盾，对自身的责任进行了深入的思考。虽然君主继续赐予官职，但金尚宪坚持辞官，不再踏入官场。因此，金尚宪在登上昭阳亭欣赏春景，但却无法尽情享受。只能“酒酣倚柱发长啸，西山落日射牛头”来消解内心的忧愁。

金尚宪的曾孙金昌协也曾为了忘却对当时政局的厌恶而登上昭阳亭。金昌协是肃宗时期的官僚和学者。肃宗时期是朝鲜历史上朋党间反目和对立最为严重的时期。朋党是一种政治性的同志集团，肃宗时期，反复发生因朋党之间斗争而导致的政治报复，导致很多人被杀。金昌协家族是代表西人和老论家族，深入参与中央政权。金昌协在1689年39岁时担任清风府使，当时父亲金寿恒被流放到名为珍岛的小岛上，被赐死。此后，金昌协从官职上辞职，隐居在京畿道永平，即今天的京畿道抱川。1694年，父亲被赦免复权，金昌协虽然被任命为弘文馆提学、吏曹参判、大提学、礼曹判书等高官，但全部辞职，隐居生活的同时专注于学问。

在1696年46岁时，金昌协为了参加朋友的葬礼去往江原道原州，回来的路上游览了春川。当时登上昭阳亭，作诗如下。

忆曾吾祖此登楼，
六十二年吾复游。
久信品题无异论，
即看奇胜少他州。
四围山远有画意，
百尺江清消客愁。
饮罢一杯骑马去，
阑干西角更回头。

题目中写着‘敬次曾王考韵’，‘曾王考’指的是金尚宪，‘次韵’是指直接使用曾祖父作诗所用的韵字。韵字是一种押韵，在汉诗中，一般在偶数句的最后一个字中放入韵相同的字，从而产生音乐性效果。一句七字的七言诗，在第一句中也放置韵字。金尚宪登上昭阳亭是在1635年，金昌协是在1696年。第1、2句说的就是这一情况。

金昌协常常听闻昭阳亭的名声，亲自来一看，发现其山水果然压倒其他城邑，发出“即看奇胜少他州”的感叹。第7、8句描写了登上昭阳亭，喝下一杯酒抚慰客愁后，因惋惜而无法轻易离开的样子。

当时金昌协还写了《东征记》。根据《东征记》的记录，金昌协在阴历8月19日和20日连续两天登上了昭阳亭。因为对于金昌协来说，昭阳亭是非常有意义的场所。昭阳亭以名胜闻名，也是曾祖父金尚宪途径留诗之地。金尚宪和金昌协来到昭阳亭的时候，甚至二人的政治情况也十分相似。金昌协想追随曾祖父的踪迹，忘却世事的忧愁，寻找今后的人生道路。

金尚宪的曾孙、金昌协的弟弟金昌翁也来到昭阳亭留下了诗作。金昌翁和金昌协一样，对严重的党争感到厌烦，在江原道麟蹄和和川等地隐居，还曾在春川及江陵生活过。金昌翁和金昌协一样，以曾祖父金尚宪所作的诗为对象次韵作诗。

昭阳江上有高楼，
吾祖来临曰可游。
襟带将无汉南地，
风流欲倒淇西州。
帘楹摇荡游鱼乐，
沙渚微茫过雁愁。
北望迢迢生远韵，
青岚浮出庆云头。

第2句的‘吾祖’指的是曾祖父金尚宪。金昌翁承认正如先祖所说，春川的昭阳亭真的是值得游玩的地方。第3句的‘襟带’意为衣领和腰带，意思是春川是险峻的山势像衣领一样环绕，江水像腰带一样环绕的要塞，汉江南部没有这样的地方。昭阳江又称北汉江，流到首尔后形成了汉江。第4句中的‘淇西’指的是平安道。平安道有很多像平壤的练光亭或安州的百祥楼一样有名的楼亭。这里说的是，春川的昭阳亭是超越练光亭或百祥楼的秀美的亭子。金昌翁带着凄凉的

心情望着北方的庆云山。庆云山是清平山的别称，是高丽时代隐士李资玄隐居之地。金昌翁望着北方的清平山，试图追随隐士李资玄的足迹。

金昌翁就像曾祖父金尚宪和哥哥金昌协一样，登上昭阳亭却无法尽情享受风流。因为虽然‘帘楹摇荡游鱼乐’，但自己却是漂泊异地的游子。金尚宪的昭阳亭诗不仅被其家族的后代所接受，还被金昌协的弟子鱼有风和李夏坤等所认可。

据说，鱼有风看到昭阳亭中挂着的金尚宪的诗板后，次韵作诗。由此可见，当时昭阳亭中悬挂着金尚宪的诗板。金昌协的门人李夏坤留下了次韵金昌协的昭阳亭诗的作品。金昌协次韵曾祖父金尚宪，因此李夏坤也次韵了金尚宪的诗。李夏坤的昭阳亭诗是1714年38岁时创作的。当年阴历3月李夏坤游览了瓮东地区，从金刚山回来后留下了名为《东游录》的游记。《东游录》记录了李夏坤阴历3月24日登上昭阳亭，感叹道：“江山清丽，烟树微茫，真如画图。”

现在昭阳亭上挂着写有金昌翁昭阳亭诗的悬板。古代的昭阳亭1950年韩国战争时被火烧毁，1966年重新建成。金昌翁的诗板也是最近写好重新挂上去的。

朝鲜后期的大学者丁若镛在1820年和1823年两次游览了春川。1823年留下了题为《泫行日记》的游记，据说，当时丁若镛写下了金尚宪、金昌协和金昌翁兄弟的诗，挂在了昭阳亭中。今天在昭阳亭中挂有写着金昌翁诗的悬板就是根据这一记录。只是没有悬挂金尚宪和金昌协的诗。可能是因为金昌翁被评价为朝鲜后期优秀诗人之一。

昭阳亭对金尚宪家族来说是一个特别之地。不仅如此，还扩展到金昌协的弟子们，重新意识到这是一个有意义的场所。

5차시 춘천의 소양정과 다산 정약용

丁若鏞是朝鲜后期的学者，与昭阳亭所在的春川有着很深的渊源。丁若鏞于1820年和1823年两次到访春川。两次来春川的时候，当然会登上昭阳亭欣赏风景并写下诗文。下面来了解一下丁若鏞的两次春川纪行，丁若鏞创作的与昭阳亭有关诗文。

首先简要介绍一下丁若鏞。丁若鏞出生于现在的京畿道南杨州市乌安面陵内里。丁若鏞很早就受到正祖的青睐，成为继承蔡济恭和李家焕的南人派系的核心人物。但政治反对派将丁若鏞与天主教联系在一起，不断进行攻击。因为朝鲜是儒教国家，所以官吏与天主教产生联系是禁忌。1800年在朝廷中，因天主教问题反对派的攻击愈演愈烈，丁若鏞辞去官职回到了故乡。第二年，即1801年正祖驾崩后，对天主教徒进行了大规模的处罚。丁若鏞因为兄弟中有天主教徒，因此被牵连而被处以流放刑。此后，丁若鏞在庆尚道长鬐、全罗道海南和康津等地度过了18年的流放生活。丁若鏞在流放地艰难生活的同时专心研究学问，留下了不少著作。丁若鏞不仅留下了一般性的诗文，还留下了《经世遗表》、《牧民心书》、《钦钦新书》等很多杰出著作。

丁若鏞在60岁花甲时，亲自撰写了自己的墓志铭，记录了自己的人生。他回忆说，“六经四书，以之修己。一表二书，以之为天下国家，所以备本末也。”这里所说的‘一表’指的是《经世遗表》，‘二书’指的是《牧民心书》和《钦钦新书》。这些著作中包含了尖锐指出当时朝鲜的问题革新国政的改革方案。丁若鏞在1818年57岁时被从流放地释放，回到了故乡。虽然丁若鏞无法为官，但他从未停止过学术研究，留下了名为《与犹堂全书》的庞大著作。

丁若鏞在家乡生活，曾两次到访春川。第一次是1820年大哥丁若铉带着他的二儿子丁学淳去春川迎接儿媳时，丁若鏞也跟着去了。当时丁若鏞从春川回来后，汇集了所作的诗歌，编成了名为《穿牛纪行卷》的诗集。

现在所看到的是收录在这本诗集中的一部分诗句。

“直北穿牛又北东，
澄泓十里乱山中。”

‘穿牛’是汉字‘横穿’的‘穿’和‘牛马’的‘牛’相结合的词语，‘牛’指的是春川的旧称‘牛首’。‘穿牛’就是‘贯通春川’的意思。丁若鏞的故乡位于汉江边，丁若鏞乘船沿着层峦叠嶂、蜿蜒曲折

的水路，溯至春川。他认为这就像穿孔一样。

下面是丁若镛在1820年第一次来到春川的时候登上昭阳亭所作的诗。来读一下诗。

渔子寻源入洞天，
朱楼飞出幔亭前。
弓刘割据浑无迹，
韩貂交争竟可怜。
牛首古田春草远，
麟蹠流水落花妍。
纱笼袖拂嗟何补，
汀柳斜阳独解船。

第1句和第2句中，将乘船到达昭阳亭，比喻为渔夫寻找桃花源进入洞天。‘桃花源’指的是陶渊明创作的《桃花源记》中出现的理想乡。中国秦朝时期，住在武陵的某位渔夫沿着落英缤纷的水路逆流而上，发现了一个躲避秦始皇暴政的人们淳朴生活的村庄。这个地方被称为武陵桃源。洞天原指神仙居住的地方，这里意为天下胜景。对于丁若镛来说，春川旅行如同离开浊世，进入淳朴之人所生活的世界，进入风景秀丽的仙境。

而丁若镛在第3、4句中回想起过去的历史。诗题为‘昭阳亭怀古’，即意为在昭阳亭回顾历史。第3句中的‘弓氏’和‘刘氏’指的是乐浪太守刘茂和带方太守弓遵。乐浪和带方是中国汉朝在古代韩半岛设置的4个占领地，离春川很近。第4句中的‘韩’和‘貂’指的是位于古代韩半岛的‘辰韩’和以春川为根据地的‘貂国’。弓氏和刘氏割据占领春川，北边与高句丽对峙，南边进攻辰韩。也就是说，丁若镛登上昭阳亭，回想起了以春川为根据地的古代列国。但古代兴盛一时的国家都消失在历史之中，丁若镛眼前所见的只有牛首平原上茂盛的春草。而且昭阳江水与人间的兴亡盛衰无关，始终如一地流淌着。

第7句是看着昭阳亭上悬挂的悬板，感受到人世无常，感慨万千。中国古代宋朝时期，魏野和寇准曾一同去某个寺庙分别题诗留念。但后来魏野和寇准再次去那个寺庙的时候，发现寇准所写诗板用丝绸包裹保存起来，而魏野写的诗板却被放置不管，堆积了很多灰尘。据说，当时魏野带去的美人用袖子掸掉了魏野诗板上的灰尘。丁若镛认为，登上昭阳亭作诗，无论像寇准一样优秀的诗，还是像魏野一样不起眼的诗，都没有太大的意义。因为纵使作一首好诗，挂在昭阳亭上，在漫长的历史中，也是微不足道的。丁若镛的昭阳亭诗在描绘了春川美丽的自

然景观的同时，回顾了春川的历史，这一点非常特别。

现在所看到的是《泐行日记》的序文的一部分。丁若鏞于1823年再次去往春川旅行。这次是儿子丁学渊带着孙子丁大林去春川迎接儿媳妇。当时丁若鏞撰写了题为《泐行日记》的游记。《泐行日记》中的‘泐’字指的是‘山水’，即沿着春川流淌的北汉江。丁若鏞与第一次春川旅行一样，乘船逆北汉江而上前往春川。所谓“意在寒溪、谷云之间也”。‘寒溪山’就是雪岳山，‘谷云’是朝鲜后期金寿增的隐居之地。北汉江上游分别与麟蹄的寒溪山和和川的谷云相连。在春川的昭阳亭附近，从麟蹄而来的昭阳江与从和川而来的长杨江合二为一。因此，纪行文的题目为《泐行日记》。

继续来看《泐行日记》的序文。丁若鏞第二次去春川旅行时，事先做了很多准备。首先准备了2艘船，1艘自己乘坐，另一艘儿子丁学渊乘坐。两船装之如屋，取了名字，像柱子上还写有字句，增添了韵味。丁若鏞扁其楣曰‘山水绿斋’，意为‘青山与江河之家’。儿子学渊的船柱上写着‘浮家汎宅’，‘水宿风餐’等。船不仅是单纯的交通工具，还是解决食宿的家，也是欣赏山水享受风流的空间。这也是《泐行日记》的序文的一部分。

丁若鏞甚至计划在第二次春川旅行中带着画家描绘美景。第一次从春川回来的时候，只能用诗文描述美景，这实在令人遗憾。而且第二次旅行想去和川的谷云九曲和麟蹄的寒溪山。所以丁若鏞听说方禹度这个人擅长山水画，派儿子学渊接他前来。虽然方禹度同意了，但最终因为身体抱恙，未能一同前往。丁若鏞感到非常遗憾。如果当时方禹度和丁若鏞一同前往，将美丽的风景画成画的话，一定会留下杰作。我也十分遗憾。

丁若鏞的第二次春川旅行有很多亲朋好友一同参加。平时以书信探讨学问的李载毅听到消息后远道而来。另外，居住在首尔的韩晚植、禹正龙、吴尚琬等年轻人也前来一同乘船出发。现在看到的是，将丁若鏞从南杨州家中乘船逆北汉江而上前往春川的旅程标注在现在的地图上。阴历4月15日出发，两天后的17日到达了春川。

现在所看到的是《泐行日记》的阴历4月20日关于昭阳亭的记录。丁若鏞与朋友李载毅等一行人一同登上了昭阳亭。在第二次春川旅行中，丁若鏞没有单独创作昭阳亭诗。而是书写了之前去过昭阳亭的前辈文人所作的昭阳亭诗，挂在昭阳亭中。当时丁若鏞书写了金时习、金尚宪、金昌协、金昌翁、李敏求、李玄锡、李縉、赵载浩等人的诗作。同时，还将第一次自己来春川时创作的昭阳亭诗也挂在昭阳亭中。另外，也写下了一同进行第二次旅行的约菴李载毅所作的昭阳亭诗。李载毅以金尚宪的昭阳正诗为对象次韵作诗，诗的内容与丁若鏞所作之诗相似。丁若鏞一行从昭阳亭下来，泛舟昭阳江上，与同伴们一起嬉戏。最近春川文化院根据丁若鏞的《泐行日记》等众多文献，筛选出15篇诗文进行版刻，重新复原了悬板。

如前所见，现在昭阳亭中挂着丁若鏞创作的昭阳亭诗悬板。上面的照片是现在挂在昭阳亭中的金时习和金昌翁的诗作，下面是李縉和赵载浩的诗作。在复原昭阳亭诗文悬板的过

程中，丁若鏞的《汕行日記》中的记录发挥了重要作用。